

여성이반,  
어떻게 살아요?

주제별 상담사례



## 차례

여는 글 ◇ 5

- 1부**
1. 부치냐, 트랜스젠더냐?: 그것이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 8
  2. 나는 결혼을 했는데...: 기혼 여성의 성적지향 탐색 ◇ 15
  3. 부부 되기와 아이 기르기: 레즈비언커플 이야기 ◇ 22
  4. 섹스가 질린 걸까, 애인이 싫은 걸까?: 섹스와 연애 (그리고 전애인) ◇ 28

**특집 칼럼: 레즈비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꼬마 ◇ 35**

- 2부**
5. 나를 지키는 방법1: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 62
  6. 나를 지키는 방법2: 따돌림과 괴롭힘을 겪을 때 ◇ 71
  7. 나를 지키는 방법3: 아웃팅 위협을 당할 때 ◇ 78
  8. 나를 지키는 방법4: 성폭력 피해 경험이 나를 주저하게 할 때 ◇ 85

**2009-2011 상담 통계 ◇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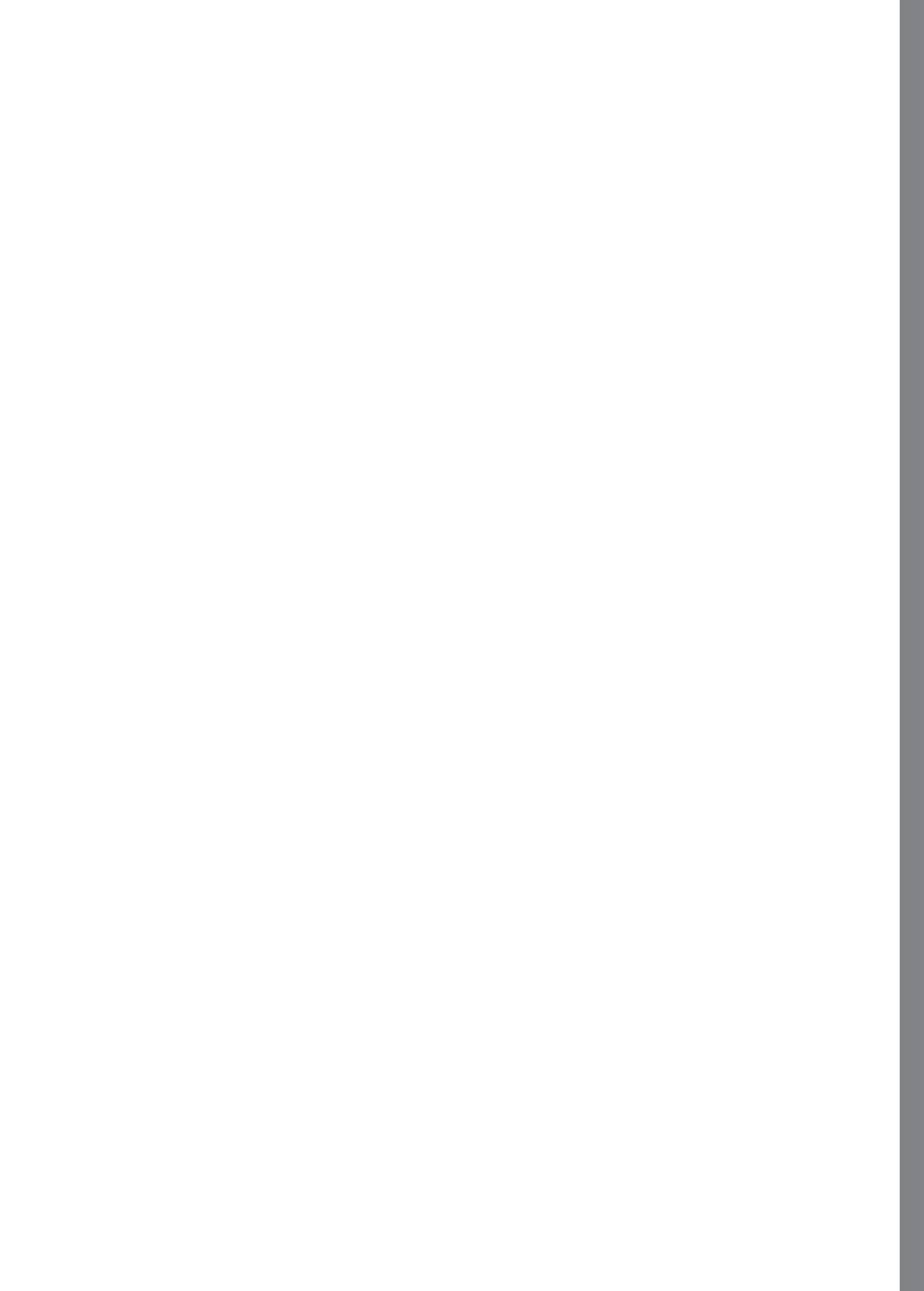


## 여는 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팀에서 오랜만에 상담 사례집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 창립 15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으로 만난 뒤 처음입니다. 그간 상담소는 홈페이지 게시판, 전화, 면접 등의 다양한 창구를 통해 꾸준히 상담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상담활동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상담을 통해 여성이반 이슈를 다루는 더 좋은 방법에 대해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온 바를 함께 나누고자 이 책자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료집은 주제별 상담사례, 한 편의 특집 칼럼,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담 통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부에 걸친 주제별 상담사례에는 상담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만나게 되는 대표적 사례 8편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상담대답을 담아보았습니다. 1부에서는 부치와 트랜스젠더(이성애자)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례, 기존 여성이반의 성적지향 탐색, 가족구성을 원하는 레즈비언 커플, 섹스와 연애를 둘러싼 고민들을 다루었습니다. 2부에는 가족과의 갈등, 학교에서 겪는 동성애혐오적 괴롭힘, 아웃팅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과 동성간 성폭력 피해경험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방법들을 담았습니다. 모두 상담소 홈페이지 “자료상자”에 지난 수개월 간 연재된 게시물들을 지금 시점에 맞게 다소의 내용 수정을 거쳐 신는 것입니다. 성정체성과 종교적 믿음 사이의 갈등에 대해 다룬 칼럼인 ‘레즈비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는 1부와 2부 사이에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담 통계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료집이라는 형식을 통해, 상담소를 찾는 많은 분들로부터 활동가들이 꾸준히 듣는 이야기를 보다 널리 나누고자 합니다. 자료집에 담긴 주제들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분들 모두에게 이 자료집이 힘을 보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상담소는 앞으로도 상담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나아가 레즈비언을 비롯한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더욱 뚜렷이 가시화하고 공공담론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제별 상담 사례 1부

\* 일러두기: 모든 사례는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 각색된 것입니다.

# 1. 부치냐, 트랜스젠더냐?

: 그것이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살인데, 1년 전부터 부쩍 고민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트랜스젠더일까? 동성애자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 총, 로봇 등 남자애들이 갖고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TV도 로봇 같은 애니메이션을 봤고요. 여자애들과 노는 것은 꺼려지고 매일 남자애들과 놀거나 남자 역할을 하며 혼자서 노는 것을 좋아했죠. 유치원 때 같은 반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개를 그냥 '친구로서 좋아'가 아니라 사랑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인 제가 싫어질 때도 있었죠.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내가 남들과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되고, 점점 제가 여자인 것이 너무 싫어졌어요. 여성



스러운 건 계속 부인하며 살고 싶었지만 중학교 때 억지로 치마를 입고 여자처럼 3년을 지냈는데, 점점 변해가는 제 몸도 싫었어요. 학교에서 여자애들이랑 옷 같이입는데 엄청 불편했고, 제 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구역질 나고 가슴 커지는 게 싫어서 압박붕대를 해보기도 했죠. 전 생리를 한다는 사실이 지금도 너무 싫어요. 생리할 땐 진짜 자궁을 어떻게 해서든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중학교 졸업 후 여고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머리를 짧게 하고 교복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화장하고 치마 입고 최대한 예뻐 보이려고 할 때, 저는 그냥 제가 편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아마도 남자처럼 보이고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 2때 같은 반 여자애를 좋아했고 그 아이와 연인처럼 관계가 가기도 했는데... 그 여자애와 같이 있을 땐 내가 여자라는 사실도 잊은 채 남자처럼 보호해주고 싶었고... 전 그냥 남자였어요. 결혼을 해서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상상도 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난 여잔데 이상하게 왜 이러지?’ 라는 생각도 들었죠. 다른 ftm분들은 ‘난 태어날 때부터 남자였어!’ 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남자기질이 있어도 ‘난 몸이 여자인 걸’ 이리면서 ‘난 여자야, 아니, 여자여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ftm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데, 제가 그 부류는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혼란이에요. 제가 정말 ftm이 맞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다는 기분으로 수술까지 하고 싶어요. 수술해서 남자화장실도 자유롭게 가고... 사실 제가 정신적인 성별만 남자여도 남자로 인정해주는 사회로 살기 있다면, 정신적 성별이 남자인 것만 증명 되도 주민등록번호가 1로 바뀔 수만 있다면 성전환수술이 그다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환수술을 아직 안 했다고 하면 “에이 그게 무슨 남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보고 있는데 ‘내가 ftm이 아니면 어찌지?’ 하는 생각에 혼자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또 사실 ftm이라고 하면 여자도 남자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어요. 전 제 자신을 ‘남자’로 느끼는 게 고민인 거지 제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이 생각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우울해요. 저는 ftm\*인가요? 아니면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인건가요?

P.S. 남성성(남자다움)과 여성성(여자다움)은 성별정체성을 정하는데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ftm이나 mtf가 어떻게 남자나 여자로 자신을 정체화하나요? 어느 정도는 남자답고 남자처럼 뭘 좋아하는 게 자신을 남자라고 정체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요. 완전 여자처럼 드레스 좋아하고 그러는데 자신을 남자라고 정체화하진 않을 것 같아서요. 물론 남자도 인형놀이 좋아할 수 있고 십자수나 뜨개질 좋아할 수 있다는 거 아는데요. '남자다', '여자다' 라는 게 모호한 것 같기도 해서요.

## 상담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느끼고 인식하는 바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며, 거기에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성별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그 성별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나요? 어떤 이름이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당신에게 가장 적합하리라 생각되는 몸의 형태는 어떠한가요? 이런 질문에 가장 잘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 레즈비언과 ftm트랜스젠더 사이

사람마다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하는 계기나, 트랜스젠더로 정체화 하는 계기는 다양합니다. 저마다의 경험도 다르고 그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레즈비언임을 확신할 수 있는 요소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트랜스젠더임을 확신할 수 있는 요소인지 경계를 그을 수는 없어요. 겉보기에 비슷한 경험을 지닌 듯한 사람들도 저마다의 감정, 욕망, 경험 등을 다채롭게 해석하면서 다른 이름을 붙여주곤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 여성이라는 성별을 부여 받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사내아이들과 동일시하며 성장했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끌렸거나 여

---

\*ftm 트랜스젠더(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 태어날 때 여성의 성별을 부여 받았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사람.

자에게만 끌려 왔으며 겉모습도 이른바 남자같이 꾸미고 사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정체화의 길은 다음과 같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 ◆ 자기를 여자라고 인식하면서, 이른바 남성적인 성격과 모습도 인정하고 그러한 자기 성격과 모습에 만족함: 이 사람이 여자를 좋아한다 할 때, 이는 동성을 향한 끌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그 점을 인지할 때는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 ◆ 자신을 남자라고 인지함: 즉, 태어날 때 사회로부터 부여 받은 성별과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이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자신이 남자인 만큼, 여자를 좋아한다면 이는 동성을 향한 끌림이라기보다는 이성을 향한 끌림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트랜스)남성이면서 이성애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 ◆ 자신을 여성과도 남성과도 동일시하지 않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여성 아니면 남성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성별을 탐색 중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나를 여성 아니면 남성 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놓기를 거부하며, 즉 우리 사회가 구성해놓은 성별체계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치 중에서도 자신을 여성이라기보다는 그저 부치로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 또는 부치-FTM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어떤 경우는 옳고 어떤 경우는 그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해석과 선택에 따라 자기 성별이나 성적지향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존중 받으며 살아갈 권리도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에 대한 해석, 몸에 대한 느낌 등에 따라 당신만의 동성애자 정체성, 당신만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나 타인에게 더 특별한 기준이나 증거 따위를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나름대로 자기 경험에 대해 일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흔히 사내아이 같다고 할 만한 사고방식, 취향, 행동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자꾸만 여성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여성의 몸'이 너무 싫었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남자'였으며,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식되길 원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몇몇 여자에게 끌렸고, 그들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함께 있을 때의 감각과는 별개로 당신의 '여자인 몸'이 당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었던 경험 때문에, 내가 남성일 수 있는지, 남성이 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이 둘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 조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이 스스로에게 설명해낸 정도로 당신을 스스로 남성으로 인지하며 남성으로서 사는데 충분하다고 여긴다면, 우선 남성으로 사는 겁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인정 여부는 이후의 문제로 하고 우선 당신이 원하는 삶과 당신이 만족스러운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 여겨지는 결정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의 관련성**

다만, 당신이 여성에게 끌리고 여성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당신 자신이 반드시 남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남성에게 끌리고 남성과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당신이 반드시 여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 같은 여자라고 해서 다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며, 여자 같은 남자라고 해서 다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모두 이성애자인 것만도 아닙니다. 비트랜스이면서 레즈비언이나 게이, 바이, 범성애자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도 레즈비언, 게이, 바이, 범성애자 등이 존재합니다.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는가'와 '내가 누구에게 끌리는가' 사이에 반드시 특정한 공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성별정체성 탐색과 의료적 조치의 선택**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몸, 원하는 성별표현, 법적 성별정정 등을 위해 원하는 정도의 성확정 수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중에 잘못 생각했다고 판단하게 될까봐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성별이 보다 분명하게 인식되는 때, 또는 수술의 필요성이 보다 명확해질 때, 그리고 다른 비슷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들으면서 용기를 얻을 때까지 수술 결정은 미루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호르몬 투여 여부를 고민해볼 수도 있고, 수술을 선택한다면 가슴, 성기성형 여부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의료적 조치를 모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라고 반드시 수

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그래야만 ‘완전한 남성/여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지하고 남성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몸은 의학적 조치를 취함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남성의 몸’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의학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트랜스젠더들이 존재하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성별인식이 불분명하거나 불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술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법적 성별정정에 있다면 다음의 사이트를 탐색해보시기를 권합니다. 2013년 3월에 성기성형 없이도 ftm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적책임연구회 보도자료]**

##### ◆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http://hopeandlaw.org/100>

아울러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 트랜스로드맵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http://transroadmap.net>

#### **성별정체성과 성역할/성별표현의 관련성**

사람마다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과 성별 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 성별을 표현하는 방식과 여자가 자기 성별을 표현하는 방식은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 패싱되지만 남성인 사람이 있고, 남자로 패싱되는 외모로 자기를 꾸미고 다니지만 여성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실생활 속에서 남성성을 강하게 표현하면서도 자기 성별 인식 자체는 여성이고 끌리는 상대는 양성 모두인 경우, 다른 한편으로는 생물학적 여성으로서 자신을 남성으로 인지하지만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을 표현하기를 더 편안해하고 이 때 끌리는 상대는 남성인 경우(여성적인 트랜스남성 게이인 경우) 또한 가능합니다.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이 여자와 여자라면 꼭 여자다워야 한다거나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남자와 남자라면 반드시 남자다워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벗어난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도 많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도 트랜스젠더가 아닌 경우에도 말입니다.

어떤 사고방식, 취향, 행동들은 반드시 남자들의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사고방식, 취향, 행동들은 꼭 여자들의 것이라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훈육되는 존재이며, 그래서 남자는 이렇고(이래야 하고) 여자는 저렇다(저래야 한다)는 경향성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이어져왔을지는 몰라도, 그 와중에 남자인데도 안 이렇고 여자인데도 안 저런 사례들은 무수히 존재해 왔습니다. 가령 규범적 여성성 중 대표적인 특징들로 여겨지는 상냥함, 수줍음, 수동적임, 긴 머리, 살림꾼 등등만 떠올려 봐도 수많은 반례들 (전혀 그런 특징을 지니지 않은 무수한 여자들, 그리고 굉장히 그런 특징들을 강하게 지닌 무수한 남자들) 이 드러납니다. 규범적 남성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규범적 여성성과 규범적 남성성 (여자는 이래야 한다/남자는 이래야 한다) 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자기 성별 인식, 성별 표현 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 어느 지점에서나 성별 규범, 성역할 규범을 이탈해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 또한 충분히 남자답거나 충분히 여자다워야만 남성 혹은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수나 뜨개질을 좋아해도 당신이 그리는 자아상과 당신이 가장 편안한 자기 모습이 남성이라면, 당신은 남성입니다. 당신이 남성적 외모를 가지고 총싸움이나 축구를 좋아해도 당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과 부대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성일 수 있습니다. 비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이 왜 남성인지, 왜 여성인지 설명하거나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당신 또한 어떤 행동과 모습을 가졌더라도 그냥 남성이거나 여성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저렇다는 틀, 레즈비언은 이렇고 이성애자는 이렇다는 틀, 이런 규정에 스스로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당신에게 그 이름들을 맞춰보 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때때로 외롭고, 때때로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또한 즐겁고 흥분되며 무엇보다 편안한 삶으로 당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 2. 나는 결혼을 했는데...

### : 기혼 여성의 성적지향 탐색

#### 사례

---

저는 결혼한지 10년이 넘었고 사이가 나쁘지 않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초등학교이 된 아이 두 명이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헬스장에서 만난 여자 강사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건강미 넘치고 털털하고 귀여운 모습에 매력을 느꼈고 함께 운동하다가 땀에 젖은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섹시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번도 제가 여자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학창 시절에 여자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주고받았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동성에게 성적으로 끌린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이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껴졌고 우리는 사적으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주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커져 결국 사귀게 되었고요.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어 자꾸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이성 애자라는 사실을 의심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니 저는 어쩌면 동성애자이거나 양성애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와의 만남으로 인해 제가 살면서 느껴왔지만 무시했던 동성에 대한 감정들이 그냥 단순했던 것이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반적인 여자라면 이런 비슷한 감정도 아예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한편, 우리의 사이가 깊어지면서 이 친구가 저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힘들어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도 이 친구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상한 엄마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지만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정리가 잘 되지 않네요. 이게 사랑의 감정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친구와 헤어지기도 싫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만 나중에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제가 이 친구를 편하게 살게 해줄 능력도 못 되고,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서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 친구에게 하면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이혼하고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혼을 아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염려가 많이 돼요. 그리고 다른 여자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때 아이들의 양육권이나 위자료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그냥 이 상태로 만남을 지속해도 되는 건지, 슬프지만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 놓아줘야 하는 건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상담글

상담소입니다. 기혼자이시며 자녀도 두고 계시다고 자기 소개를 해주셨네요. 작년부터 동성의 상대와 교제를 하게 되면서 본인이 양성애자인 걸까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보게 되었다고 적어 주셨고요. 남편 아닌 사람에게 마음이 많이 끌리시는 상황이고 그 상대가 동성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우신 상황일 것이라고 짐작해봅니다.

###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때

상담원은 가장 먼저, 동성의 상대를 좋아하고 그 상대와 사귀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성적인 욕구를 갖는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존중 받아 마땅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 간의 사랑, 교제, 성관계, 혼인만이 존재 가능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동성의 상대에게 끌릴 가능성과 이성의 상대에게 끌릴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성애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 동성의 상대에게 끌릴 자기 안의 가능성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 상당히 많을 뿐이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동성의 상대에게 끌리는 경험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을 좋아하거나 사귀고 싶거나 성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자신을 스스로도 견디질 못하고 끊임 없이 자책하고 힘들어하면서 자기 감정을 부정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그런 이끌림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건 상관없이 그 자체로 소중한 감정입니다. 내가 여자를 좋아한들 그건 잘못이 아니다, 여자가 여자로서 여자를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양성애자인가 동성애자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서둘러 규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남자를 좋아했던 경험, 여자를 좋아했던 경험들이 다 있는 분들의 경우 자기 경험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나에 따라 본인을 동성애자로 정체화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양성애자로 정체화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가까우지는 지금 자신의 감정을 잘 보살펴 주고 고민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시는 가운데 차근차근 생각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

### ◆ 자녀들과의 관계

한편으로는 동성 애인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상한 엄마가 되면 안 되니까 정신차리자' 라고 마음을 먹어 오셨다고 적어주셨지요. 엄마라면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여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당연히 드실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다 있어야 좋고,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좋아야 더 좋다는 게 행복한 가정의 모델처럼 굳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은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애써 접는 데 있다가보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관심과 애정에 소홀함이 없는 데 있을 거예요. 부부라고 해서 마음이 변치 않으리라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헤어져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부부라면 당연히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함께 해야 하고 자식을 봐서라도 그게 좋다는 건 오히려 갈등과 불행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그때 그때의 상황 속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남편과 이혼하게 되더라도 엄마가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걸 항상 느낄 수 있도록 해서 불안하지 않게 해 준다면 아이들에게 '이상한' 엄마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 ◆ 파트너와의 관계

그동안 결혼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느라, 그리고 파트너의 상황도 챙기느라 마음이 많이 고달프고 지치셨을 듯 해요. 이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이 원하는 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답' 이라고 할 법한 건 존재하지 않으니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이성 결혼관계를 유지하면서 큰 갈등 없이 동성 파트너와 교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드시 서로 이혼할 것을 암묵적으로라도 합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관계를 맺고 있는 한 적극적인 교제로 진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에게 무엇을 원

하는지, 어떤 방식의 관계 맺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 어떤 선택만이 정답이라거나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좋겠어요.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통해 선택을 하는 것이 현재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당위적 판단보다는 당신의 선택에 따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여러 결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애인과는 앞으로 서로에게 약속할 수 있는 관계의 상이 무엇인지, 서로가 가진 욕구는 무엇인지 충분히 오랜 시간 소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사자인 애인 분이 현재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과의 만남을 지속하거나 그만두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듣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신은 애인과 헤어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상대방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지만 상대방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당신이 짐작하고 있는 바와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어림짐작 하시기보다는 상담소에 적어주셨던 솔직한 마음들을 상대방에게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스스로도 애인 분께 품고 있는 마음, 앞으로 이어나갈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남편 분과의 결혼 상태를 유지하실 생각이시라면 본인의 입장에서도 남편과의 결혼 상태와 애인분과의 연인 관계를 동시에 계속 가져가는 것에 대해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신지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 애인과의 만남이 지속될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서 생겨날 갈등이나 문제점들도 예상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남편과의 관계: 이혼

마지막으로 이혼을 선택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유책배우자의 조건은 무엇인지, 합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위자료나 자녀 양육권 문제는 어떤 기준들을 고려하여 결정되는지에 대

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이혼이 현재 한국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http://www.lawhome.or.kr) 와 같은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http://oneclick.law.go.kr/CSP/Main.laf) 에 방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신이 이혼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이혼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에 더욱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혼 과정에서 남편에게 커밍아웃을 하거나 동성과 교제 중임을 알렸을 때 동성애 혐오적인 상황에 놓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남편이 두 분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혼에 합의하지 않거나 친지들에게 당신의 성정체성을 동의 없이 알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 받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더 이상 못 받게 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지요. 폭력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동성 커플임을 빌미로 협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애인 분도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당신의 성정체성이나 동성과의 혼외 교제 사실 등을 당장 밝히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커밍아웃을 하게 될 경우에도 외도 사실이나 이혼과는 별개로 아웃팅이나 성정체성으로 인한 폭력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남편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정체성을 이유로 피해를 입게 될 때에 저희 한국레즈비언상담소와 같이 도움을 청할 곳을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이혼 합의를 이끌어낼지, 그리고 동성애 관계로 인한 협박과 아웃팅에 대비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쏟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당신은 제도적 결혼으로 인해 안정적인 삶이라는 혜택을 받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

고 이혼을 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중요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고 그러한 용기를 낼 것인지, 혹은 지금껏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변화를 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러한 삶을 새롭게 꾸려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애인 분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남편과의 관계와 결혼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을 수는 있지만 오로지 현재 애인 분과의 관계만을 바라보며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후에 애인 분과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그 책임을 애인 분에게 돌리며 원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편과의 관계가 변화한 것처럼 애인과의 관계도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신이 새롭게 한 경험들로 인해 더 이상 이성애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혼을 고려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 3. 부부 되기와 아이 기르기 : 레즈비언커플 이야기

#### 사례

저희 커플은 미래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씩 나누어온 대화를 현실로 만들어 가면서 차근차근히 가족을 구성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파트너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의 미래를 그리는 대화도 조금씩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게 되면서 어느덧 저희의 계획이 아이 욕심에까지 달았습니다.

입양하고 싶은 마음은 어릴 적부터 있었지만 제 애인도 또 저도 저희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공수정이나 정자공여 같은 시술부터 여러 가지를 알아봤지만, 어느 하나 분명한 답이 없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 동생이 남자인데, 남자동생에게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을 한다고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일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약 저희가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크면서 상처를 받거나 어디 가서 가족에 대해 말도 못하고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으리란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은 저희의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법적으로 저희의 관계가 보장되지 않고 주변에도 저희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산을 반반 나누어서 각

자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참 싫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을 공동 명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상담글

동성 커플의 임신과 동성 결혼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 동성 결혼 및 파트너십

우선 한국에서의 동성 결혼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릴게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동성결혼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05년 호주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 개념이 삭제되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를 바랄 수는 있게 되었지요.

다른 나라들의 경우 동성 결혼에 대하여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제도적 보장의 범위들은 언제나 조금씩 변화하는 편이에요. 더욱 자세한 해외의 동성 결혼 및 제도적 보장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위키피디아의 '[동성 결혼](#)' 항목을 참고하시면 가장 최근의 동성 결혼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동성\\_결혼](http://ko.wikipedia.org/wiki/동성_결혼)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나 시민결합과 같은 제도적 보장이 전혀 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성소수자 단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성소수자들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과 분노를 많은 동성애자 및 성소수자들이 동감하고 있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만들어나가고 있으니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관심을 잃지 않고 또 변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한다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공수정을 통한 동성 커플의 자녀 갖기

인공수정 등의 방법으로 두 분만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국내에 인공수정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의학계에서 윤리지침으로 법률상 혼인부부(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애 결혼 제도 안에 있지

많은 사람들은 인공수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일본에서 인공수정을 받기도 하고 미국 등에서 인공수정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이 한번에 성공하기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제력이 웬만큼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을 하고 출산하기까지의 과정도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인공수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는 성소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현실적으로 인공수정 과정을 밟아나갈 길을 모색해야 할 터입니다.

### 입양을 통한 동성 커플의 자녀 갖기

입양에 대해선 아직 생각을 해 보시지는 않은 듯 하지만 입양에 대한 정보도 몇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자의 입양은 공식적인 통로로는 불가능했답니다. 한국 대부분의 입양기관들이 정해놓은 원칙이 법적으로 혼인관계인 이성애자 부부 중 경제력이 있고 부부관계가 평화로운 경우에만 입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동성애자라고 밝히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미혼 상태일 경우에는 입양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기쁘게도 이제 독신자 입양은 가능해졌습니다. 법률상 입양 양친자의 자격 중 혼인 중일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독신자 입양 정책이 동성애자 정체성을 배려해서 입양된 사항이 아니기에 동성애자 인권을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독신자에게 입양이 허용되었다고는 해도 입양을 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인관계에 있는 분과 법적인 결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자 입양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동성애자 입장에서라도 나름 활용 가능합니다. 동성 파트너와 ‘함께’ 아이를 입양할 수는 없어도 한 사람이 입양하여 함께 키우기란 가능하니까요.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되기는 어렵지만 대안가족이라는 형태로 꾸려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유사한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해 나간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동성 커플로서 자녀 기르기

한편, 아이를 낳아 키운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셨는데요. 커밍아웃을 하건 하지 않건 어쨌든 이성애자 '정상 가족'이 아닌 형태의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게 될 터이므로 남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경우들이나 자격지심을 갖게 되는 일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 부모를 둔 자녀 혹은 한 부모 가정의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 드려요. 여러 개인과 단체들이 그런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동성 커플의 양육이 아이에게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성적 측면에서 결코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해외 연구결과들도 존재합니다.

또,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레즈비언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키우며 파트너와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요. 파트너와 함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정자를 기증받는 여성분들도 있고 (꼭 레즈비언이 아니더라도) 독신 여성으로서 아이를 입양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성과 결혼했던 쪽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레즈비언 커플도 있습니다.

덧붙이면, 이성 커플이 중심이 된 가족이 동성 커플이 꾸린 가족보다 당연히 덜 상처받고 더 행복할 것이라는 것도 일종의 환상에 가깝습니다.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족이란 구성원들이 서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달려있지 부부가 이성 커플인가 동성 커플인가 하는 문제 자체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가정폭력 및 각종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고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성 커플 중심의 가족 일원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성애자건 동성애자건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가족 형태 때문에 침해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래의 권리였던 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 앞으로는 더 많은 요구가 필요하겠지요. 참고로, 한국레즈비언상담소를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운동진영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꾸리며 살아가도 법적인 권리를 누리고 정서적으로 차

별 받지 않도록 정책 및 인권 운동에 힘쓰고 있어요. 지금 당장 변하지는 않겠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변화를 실천하고 씩씩하게 살아나간다면 지금 이렇게 답답한 이성애자 가족 제도를 깨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대안 가족으로서 경제적 공동체 되기

마지막으로 공동명의와 관련되어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게요. 두 분이 더불어 일구어가는 삶인 만큼 경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지리라 생각이 되어요. 재산을 반반 나누어 관리하고 계시면서 싫은 느낌을 받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도 심분 공감이 되고요. 마음으로는 같은 공간에서 같이 누리고 계신 모든 것들을 공동의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시겠지만 그것이 일정한 제도로 보장되고 격려 받지 못하니 그러한 갑갑함이 관계 자체를 주위에 쉽사리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겹쳐져 두 분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두 분이 서로 격려하며 꾀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일단 포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면, 두 분이 공유하고 계신 재산을 공동명으로 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랍니다.

시중 대부분의 은행에서 혼인하지 않은 법적 타인간에도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전세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월세 임대차계약 시에도 공동명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도 공동 명의로 할 수 있고요. 공동명의 통장 개설은 두 분이 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함께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그간 해 오신 재테크가 있으실 터이니 주거래 은행 중심으로 해서 공동명으로 통장들을 개설하여 같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과 같은 절차를 거칠 때는 계약시 중개인과 집주인 입회 하에 공동명으로 계약함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중에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갈 때 공동명으로 계약한 두 분이 각각 애초 계약시 정한 비율대로 집주인에게 따로 돈을 받을 수 있게 처음부터 잘 처리해 두어

야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다툼(집주인과 두 분의 다툼, 혹은 두 분 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요.

두 분이 커플이라는 것을 실무자들에게 굳이 드러내지 않고 각별한 언니-동생 사이라거나, 서로 도와주며 사는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만 드러내도 공동명의 건을 문의하고, 답변을 듣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보험은 현재 들고 계신 보험이나 앞으로 들게 되실 보험에 대해서 상속인 지정을 따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각 보험마다 따로 알아 보시는 게 좋고, 두 분 중 한 분에게 사고가 생길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그럴 경우의 '상속'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속사항을 적은 유언장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서류로 만들어 두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 4. 섹스가 질린 걸까, 애인이 싫은 걸까? : 섹스와 연애 (그리고 전애인)

### 사례

---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너무 힘들어서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2년 전 만나고 사귀었던 언니가 있습니다. 그 언니는 저를 만나기 이전에는 여자를 사랑해본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직전까지도 남자 애인이 있었고요. 그런데 일 년이나 만나오면서 꽤 여러 번 섹스를 시도했는데 늘 멈추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거부를 해서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며 미안해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따뜻한 애정과 우정으로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한데 섹스를 하는 문제 때문에 둘 다 너무 우울해졌습니다. 언니는 제가 원하는 섹스를 자기가 거부하니까 자신이 '불완전한 사랑'만 준다고 생각해서 우울해했고, 저는 언니가 저의 모든 것을 원하지 않는 듯한 느낌 때문에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섹스를 하지 않으니깐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면 언니가 나를 배신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서 괴로웠습니다. 언니는 남자 애인과는 섹스를 한 적이 있었고, 그때는 이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내가 여자라서 언니가 나와는 섹스를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제가 너무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 언니가 죄책감마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육체적 사랑이 가능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언니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언니도 저를 위해서 그러마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언니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아주 많이 사랑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언니를 떠나고 싶지는 않았 습니다. 언니에게 너무나도 미안했고,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이 제 헤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헤어지고 나서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과 어쩌다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물론 여자고요. 지금은 둘의 사정상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귀는 애인은 객 관적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고, 같이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애인과의 관계에서 또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 트러블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애인과는 매일 성관계를 갖는데 이제는 제 쪽에서 성관계를 별로 원하지 않 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 애인의 모든 것을 보게 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애인이 씻 는 모습, 생리 중인 모습들을 옆에서 낱낱이 지켜보게 되니까요. 너무 지나치게 편해져 서 그런지 아니면 가족 같아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이제는 애인과의 섹스가 내키지 않 습니다. 관계를 갖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기도 하고요. 저도 이런 제가 너무 이상한 것 같지만 진짜 제 마음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애인에게 제가 질려버린 걸까요? 육체적 관계가 오가는 사랑을 하고 싶어 선택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어버리고 나니 미칠 것 같 습니다. 전에 사귀었던 언니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만 자꾸 들고요. 지금 애인도 전 에 사귀었던 언니에 대해 제가 다 말해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니와 친구로서의 관계라도 회복하고 싶어서 다시 연락하려고 하는데, 그걸 애인이 절대 반대하며 막고 있습니다. 그런 애인의 태도가 밉기도 하고요. 자기도 전 애인이었다가 지금은 친구가 된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과 꽤 자주 만나면서 왜 내가 언니를 만나겠다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면에서는 애인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 다고 애인 몰래 언니에게 다시 연락하자니 그건 좀 마음에 걸리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 상담글

어서 오세요. 상담소입니다. 전 애인과 섹스 관련 문제로 헤어졌던 일, 그리고 지금 애인과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적어주셨네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우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 섹스를 거부하는 전 애인과의 이별 경험 다루기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섹스를 거부하는 전 애인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애인이 육체적으로 남자에게 흔들리게 될까 불안했고, 스스로도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웠다고도 하셨지요. 애정과 우정으로 함께하는 모든 일은 행복하지만 성적인 관계에 있어 여러 번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상담원은 감히 짐작해 봅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선 힘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 애인 분은 마음속으로 동성 간의 섹스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가 거북하게 느껴지는 마음을 조금씩 극복해나가는 것이 필요했었을 텐데, 당신의 노력만으로 온전히 해결되기에는 어렵기에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면 언니가 나를 배신할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셨던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육체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헤어지기로 했던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헤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애인과의 관계에서 이미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무력하게 느껴진다면 이별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그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니 언니에게 이별을 고했던 과거에 대해 너무 미안해하거나 괴로워하지는 마시고, 보다 편한 마음으로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현재 애인과의 내키지 않는 섹스 문제 다루기

그리고 지금은 애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셨지요. 애인과의 동거 생활이 행복하면서도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서 점점 고민이 쌓여가는 날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남겨 주신 글을 꼼꼼히 읽어 보면서 당신이 현재 교제 관계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성관계를 포함한 애인분과의 관계 자체가 안정기로 접어들고 애인과 생활까지 모두 함께하는 상황에서 애인이 연인보다는 가족 같아져서 교제 초창기의 강렬함이나 설렘, 호기심 같은 감정이 많이 없어져버렸다는 점이에요. 커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어떤 커플도 교제 초기의 열렬한 마음이나 상대에 대한 환상을 처음과 같게 유지하지는 못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친밀해지는 과정 속에서 세심한 애정과 배려와 관심을 차곡차곡 쌓으며 따스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제관계의 매력이기도 하니까요.

마치 어떤 스타를 동경할 때 그 사람은 어쩐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다는 착각을 하기 쉬운 것처럼 사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애인이 갖고 있는 사소한 허술함이나 결점을 전혀 보지 못하다가 차츰 알아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애인이나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점들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 나가는 게 연애관계를 비롯한 깊은 관계에서 가능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닐까요? 그러니 혹시 연인인데 이렇게 가족 같은 기분이어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 서로 긴장감 없이 편하기만 해도 되는 걸까,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다면 조금은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도 좋아요. 가족 같은 기분이나 편안한 기분을 있는 그대로 누리셔도 좋답니다. 그것 자체가 기분 좋고 소중한 경험이니까요. 우정에 한없이 가까운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연애는 가능하답니다.

다만 그런 느낌들 속에서 성적인 자극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매일같이 하는 성관계에서 다소 지루하고 의무적인 느낌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솔직 담백하게 대화 나누시면서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시길 권하고 싶어요. 사람마다 성적인 욕구가 클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런 주기가 커플 간에 잘 맞을 때도 있고 잘 안 맞을 때도 있답니다. 게다가 서로 많이 익숙해진 커플들은 더 이상 상대방과의 성관계로부터 즐거움을 못 찾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서로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풀어갈 수 있어요. 이를테면 성관계의 횟수도 두 분이 이야기 나누어 조절할 수 있고요. 성관계를 할 때의 구체적인 방식들도 매번 세세하게 조율해 나갈 수 있겠지요. 만약 섹스를 할 때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면 짧고 박력 있게 하는 방식을 함께 찾아본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이제까지 시도해보지 않았

던 색다르고 재미있는 방법들을 사용해 평소와는 다른 자극을 느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예요. 그러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힘들시다면 함께 온라인 여성 이반 커뮤니티의 성 고민 게시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도 있겠지요. 만약 여성 간 섹스를 다루고 있는 출판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쉽지만 아직 한국에는 출판된 책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 《한채운의 섹스말하기》라는 현재로서는 절판된 책이 있는데 상담소를 비롯한 몇몇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 구비가 되어 있으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적인 욕구가 별로 없을 때 애써 욕구를 느끼려고 노력하지는 않아도 된답니다. 그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요. 꼭 상대방이 나에게 더 이상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상태 자체가 현재 별로 성적인 데 신경이 예민해지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상대를 아주 많이 사랑하더라도 그 감정과 무관하게 성욕이 느껴 지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이상한 게 아니랍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애인과 서로 솔직히 나누며 그런 대화를 통해 신뢰와 애정을 빚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전 애인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애인과의 갈등 다루기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의 애인이 전 애인을 친구로서라도 만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적어주셨는데요. 당신이 전 애인과의 이야기를 길게 남겨 주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관계였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지금 나와 사랑하고 있는 연인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필요하고 귀중한 관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나와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전 애인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전 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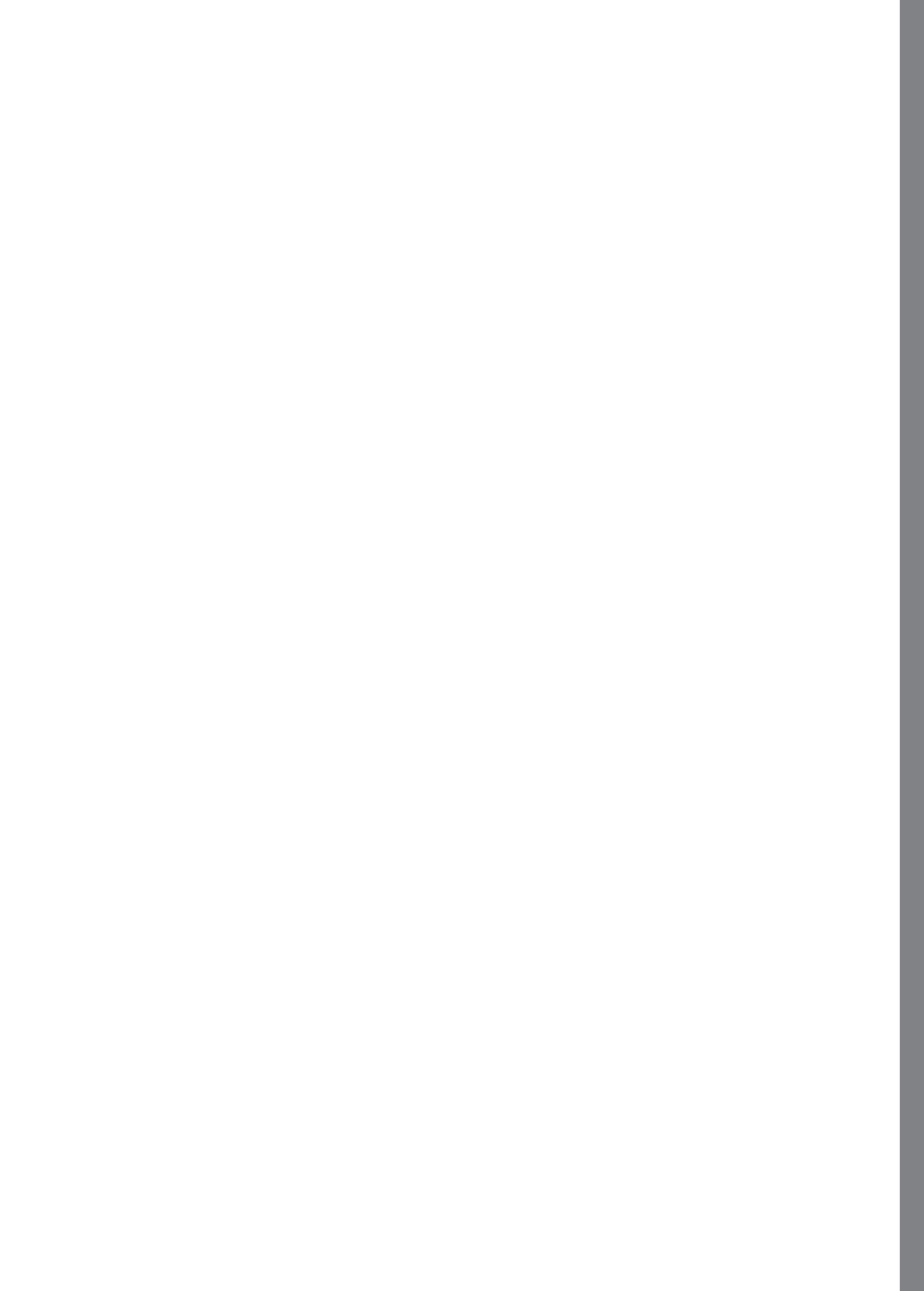
그렇지만 친밀하고 소중한 관계에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보도록 노력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관계이건 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노력과 소통과 때로는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마음을 미리 먹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 애인과 찬찬히 다시 대화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구를 충분히 존중하되 그 욕구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솔한 태도로 애인에게 대화를 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식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두 분의 관계에서 신뢰가 깊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애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별개로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정말로 바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를테면 전 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이 과거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재 애인과의 관계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마음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비판단적인 태도로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애인과의 관계에서 나의 어떤 마음이 좌절되었고,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나 자신부터 제대로 알고 있어야 연인간의 관계에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인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겪을 때 그 문제의 성격이 어떤 것이든 내가 말할 때에는 솔직하게 정성스럽게 말하고 상대방이 말할 때에는 열심히 경청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화의 결과로 어쩌면 연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이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껄끄럽고 어려운 화제에 대해서도 잘 풀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집칼럼  
: 레즈비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꼬마

## 1. 들어가며

‘동성애와 기독교’라는 주제에 대해 글을 쓸 것을 처음 제안 받았을 때 기분이 조금 복잡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분명 할 말이 없지는 않은데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들이 많이 녹아있는 주제인지라 객관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주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씁니다’ 라고 먼저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목회 일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독실한 기독교(개신교) 가정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에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적 종교관에 의식을 품게 된 것은 중학생이 되기 직전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민 끝에 저는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까지도 유효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가치교육의 영향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독교적 가치와 동성애자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에 교회에 나가보고 실망하는 일을 최근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중간 어딘가의 영역에 어설픈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종교적 갈등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 온 당사자로서 기독교인 동성애자들의 고민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과 성정체성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탐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글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 상담소의 종교 내담 사례들

종교에 대해서 고민하며 상담소를 찾아오는 내담자의 수는 확실히 많은 편은 아님

니다. 그 동안의 상담통계 자료에 의하면 종교 고민으로 분류할 수 있는 내담 사례는 2005년에 4건, 2006년 5건, 2007년 7건, 2008 4건, 2009년 7건, 2010년 8건, 2011년 5건입니다. 그 중 대다수는 기독교와 관련된 내담 사례입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끊이지 않고 꾸준히 있어 온 내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고민이 주가 아니더라도 자신, 가족 및 지인의 종교와 그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내담사례도 다른 고민들 속에 섞여 종종 등장합니다.

한편 2004년도에 레즈비언권리연구소에서 실시한 레즈비언 실태조사에 의하면 119명의 레즈비언 중 개신교인의 비율은 21.2%, 천주교인은 9.6%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개신교 신자들의 비율이 18.3%, 천주교 신자 비율이 10.9%(통계청, 2005)인 것을 생각해본다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성애자 중에 기독교인이 상대적으로 드물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어쩌면 상담소에 들어오는 내담 수로 추측할 수 있는 것보다 이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다는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고민을 쉽게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기독교인 동성애자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요? 상담소 내담 사례에 나타나는 고민의 유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1) 모순된 정체성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힘들어요.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동성애자가 있나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예요. 제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레즈비언인 저도 저 자체가거든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싫어하시니까 회개해야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 잘못을 빌고 싶지는 않아요. 둘 다 내 모습인데 그게 모순인 것 같고 제 삶 자체가 거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천주교를 믿고 있는데 하느님은 동성애자를 지옥으로 보내시니까 제 종교를 버려야 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매일 인생이 괴롭다고 말해요. 울기도 하고, 가끔 자해도 해요. 살기가 힘들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천주교를 믿어요. 저도 오래 전부터 예수님, 하느님을 믿어 온 터라 종교를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제 성정체성을 배척하고 죄악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부대끼면서 신앙을 지켜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당도 몇 년 전부터 안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 정말로 여태까지 힘이 되었던 제 신앙 자체는 지키고 싶어요.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은 성당에 다닐 수 없는 건가요?”

많은 기독교인 동성애자 내담자들은 기독교인과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 동성애자’라는 말 자체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둘 중 한가지 정체성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담자는 교회에 더욱 열심히 나가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동성을 향한 끌림을 ‘없애’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내담자들은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져왔던 종교를 버리고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자신에게 중요한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이 선택은 내담자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상담소에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두 가지 정체성이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애타게 묻거나 결국 둘 중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서 느끼는 깊은 상실감을 털어놓습니다.

## 2) 죄책감

“전 그 사람이 여자라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사랑할 뿐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 사랑이 죄가 되는지 알 수 없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 사람과 만나면서도 계속 죄책감이 들어서 괴로워요. 그래서 헤어지려고도

해봤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스킨십을 안 해보려고도 했지만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도 감정이 제 마음대로는 안돼요. 그냥 사랑하는 것뿐인데도 동성애자들은 죽어서 모두 지옥에 가는 건가요?”

“교회에 가기 싫어요. 설교 시간에 앉아 있으면 제가 죄인 같고요. 어차피 이려고 있어봐야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테니 천국이고 뭐고 나랑은 상관 없는 이야기인데 대체 여기에서 뭘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람에게 동성을 좋아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는지 묻고 또 묻고 원망하고요. 이것도 사랑일 뿐인데 정말로 용서 받지 못할 죄인가 싶습니다.”

“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엄마에게 동성애에 대해 물어보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동성애는 안 된다 그랬어’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라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떡해?’ 라고 물어보면 엄마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생 혼자 살아야지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동성애를 실제로 행하지는 않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대요. 사랑하는 것도 그냥 혼자서만 사랑하고, 성정체성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평생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너무 슬프잖아요. 어떻게 평생 혼자 짝사랑만 하다가 쓸쓸하게 죽지요? 한번 더 이성을 좋아하도록 시도해 보는 것만이 답이겠지요?”

“애인과 키스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레즈비언인 제가 더럽다고 느껴졌습니다. 단지 키스일 뿐이었는데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부분이 육체적인 행위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좋아하기만 해도 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직접 하지 않아도 음탕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지 여자를 좋아하는 것 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봤자 결국 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떤 내담자들의 고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죄책감’입니다. 이 고민을 하는 내담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정했고, 종교적 믿음도 버릴 수 없다고 일단 결정했지만 자신이 종교적 교리에서 최악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 때문

에 지속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책감이 계속된다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종교에 분노와 회의감을 느끼며 종교를 버리기도 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성애자로서 살아가고자 노력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모순된 정체성이라는 주제는 종종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어떤 내담자들은 동성에게 연애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실제 연애관계로 발전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연애를 하더라도 성관계를 비롯한 스킨십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상대 파트너와 갈등을 겪거나 스스로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반면 어떤 내담자들은 단지 동성에게 연애감정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는 자연스러운 것들이 동성애자에게는 원천적으로 박탈되었다는 생각에 분노를 느끼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성적인) 행위는 안 된다’ 라는 믿음을 많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유는 동성애를 죄악시한다고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이 모두 성관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보수적 성관념을 내재화하고 있을 때 성행위에 대한 죄책감은 그 깊이를 더합니다. 기독교의 전통적 성관념에 따르면 성관계는 생명을 만들기 위한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이성애자 부부 사이의 성행위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성관계는 죄가 됩니다. 낙태는 물론이고 피임이나 자위행위, 그리고 동성 간 성관계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섹스는 기독교의 정상주의적 성 가치관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기독교인 내담자들이 성관계로 인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원인에도 이러한 보수적 성관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 3) 종교 커뮤니티에서의 고립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제게 힘이 되어왔기에 버릴 생각은 없지만, 성당에는 몇 년 전부터 나가지 않고 있어요. 신부님이 ‘죄악 속에 사는 동성애자들이 우리에게



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강론하시는 걸 듣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집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했지 그런 곳에 나가고 싶지는 않네요. 혹시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종교는 우리나라에 없나요?”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너는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라고요. 더 이상은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상하게 들릴 것은 아는데, 전 크리스천 레즈비언입니다. 교회의 어떤 분께 상담을 받아봤는데 절 가여워하시며 함께 고쳐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별로 고치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여자가 좋고, 여자를 사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일지라도 전 크리스천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 너무 답답하고 외롭네요.”

또 다른 내담자들은 큰 내적인 갈등 없이 자신의 성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통합한 상태로 상담소에 찾아옵니다. 이미 그들 몫의 고민을 통해 그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봅니다. 이런 내담자는 성정체성을 바꾸거나 오랫동안 가져온 종교를 버려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달리 ‘기독교인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상심합니다. 용기를 내어 종교 커뮤니티에서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성정체성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목사나 교회의 지도자, 멘토에게 커밍아웃을 하지만 ‘회개를 하자’, ‘악한 영이 들었다’, ‘악마의 유혹에 빠졌다’ 와 같은 강한 거부반응과 만나면서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내담자의 경우에도 설교 내용 중에 동성애혐오적인 발언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교회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가 결코 환영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커뮤니티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 커뮤니티와 종교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일부분을 각각 숨기며 아주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고 교회를 비롯한 종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한편, 비종교인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 내담자들이 종교 커뮤니티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그로 인한 깊은 고통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곳에서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왜 그냥 떠나버리지 않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커뮤니티가 내담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거부당했을 때의 좌절감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의 소속감이 레즈비언 당사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 동성애자에게는 성적체성만큼이나 종교적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 커뮤니티에 대한 절실함은 성소수자에게 커뮤니티가 갖는 의미와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 4) 지인 및 가족의 종교

“어머니는 저에게 직접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하신 적은 없지만 기독교인답게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게 뻔합니다. 만약 제가 커밍아웃을 한다면 어머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극복해나가자 같은 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밤새워가며 절 위한다고 울며불며 기도해 매일 리시겠지만 아무리 어머니라도 저에게는 이것만큼 거북스러운 짓은 없습니다.”

“어머님이 애인이 저에게 쓴 편지를 발견하고는 저를 죽이려 드셨습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지라 살인은 용서해도 동성애만은 끝끝내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같이 죽자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제 애인 집에까지 전화를 해 아웃팅을 하고 일이 무척 커졌습니다.”

“엄마가 기독교인이어서 동성애자를 혐오하세요. 저번에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더럽다고 말하셨거든요. 저는 동성애자인데, 절대로 커밍아웃을 하면 안 되겠지요.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상심이 크실

지 벌써부터 죄송스럽네요.”

어떤 내담자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별 다른 문제가 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인이나 가족이 기독교를 믿고 있을 때입니다. 내담자들은 커밍아웃을 하거나 아웃팅을 당한 뒤 종교를 가진 가족 및 지인이 보이는 강한 거부반응으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혐오 반응을 넘어서 감금, 협박, 폭행, 아웃팅 등의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내담자들은 가족이나 지인이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커밍아웃을 할 수 없으며 성정체성이 알려진다면 큰일이 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부모님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다른 동성애자들과는 달리, 부모가 기독교인일 경우에 당사자 자녀들은 커밍아웃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며 절대로 들켜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체념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교를 가진 동성애자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성정체성이 공존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교회 커뮤니티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인인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상처 받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 쉬운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민들입니다.

### 3. 기독교와 동성애자의 갈등

#### 1) 기독교 → 동성애자

그러면 왜 동성애 정체성과 기독교 신앙은 도무지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을까요? 실제로는 동성애자 중 종교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와 비교해서 유의하게 다르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기독교계에서 동성애자를 탄압해 온 역사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는 동성애에 대해 일관된 입

장을 가져왔고 그것을 드러내는 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2003년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반대 성명을 내고 공개적인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던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한 기독교계의 호모포비아적인 반응에 크게 낙담한 10대 동성애자 인권활동가이자 천주교 신자였던 육우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07년에는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하며 동일 단체인 한기총에서 반대 로비를 하고, 결국 성적지향 항목이 빠지게 되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반대광고를 내며 '며느리가 남자라니 웬 말이냐' 라는 어처구니없는 문구를 신문에 실었던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굵직한 사건들을 제하더라도 기독교계에서 동성애에 대해 굵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강도 높은 동성애혐오적인 발언이 설교에 단골로 등장하곤 합니다. '동성애는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징표이다', '동성애자는 에이즈에 걸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등등의 발언은 이제는 진부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은 동성애 관련 사안에 거의 항상 가장 배타적인 입장을 표시합니다. 당장 동성애자 개개인의 주변에도 커밍아웃을 했을 때 가장 황당하고 기분 나쁜 반응은 기독교인으로부터 왔다는 경험담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회개하고 천국가야지" 하는 반응이나 얼굴을 굳히며 "동성애자는 지옥에 간댔어" 하는 등의 반응들 같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거나 아웃팅을 당했을 때 문제는 단지 기분이 나쁜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여행이나 기도회에 억지로 끌려가서 회개를 강요 받고 교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악한 영을 퇴치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무시무시한 경험담도 종종 들려 옵니다.

최근에는 동성애가 보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인권 문제가 전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기독교계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수용적인 기독교인들의 최근 입장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동성애가 교리적으로 죄라는 것은 사실이고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그렇지만 어차피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신 앞에서 죄인이고 동성애

가 다른 죄보다 더 중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에 비해 추가된 죄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더 취약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동성애자는 변화되고 회개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들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내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약자들을 보듬고 살폈듯 교회에서도 동성애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근본주의 기독교계의 완강한 반대에 비해 훨씬 완화되고 수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덜 문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조차 아주 소수기이기도 하지만요. 이와 같은 '길 잃은 어린 양' 관점은 '사탄에게 홀린 타락한 죄인'이라는 기존의 주장보다는 덜 폭력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동성애는 죄'라는 입장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동성애는 최악이라는 주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동성애자 기독교인들이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죄책감은 교회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 종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는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의 수용이 진정한 의미의 수용이 아니라는 점은 꽤 명확합니다.

## 2) 기독교 ← 동성애자

그렇다면 동성애혐오적인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튀겨져 나온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완전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길도 요원해 보입니다. 공식적인 통계치나 연구를 통해 조사된 바는 없지만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종교를 향해 갖고 있는 지배적인 정서는 일종의 반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주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주류 기독교계의 동성애혐오적인 발언과 행동들이 되겠지만요. 특히 성소수자 커뮤니티 중에서도 퀴어 이론이나 퀴어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집단에서는 종교를 가지는 것에 비해 일종의 '세련된 무신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향성이 선호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퀴어 문화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퀴어들이 이성애자에 비해 미래지향적인 시간성으로부터 보다 자유롭다는 점, 확장된 청년기를 바탕으로 하위문화를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는 점 등이 퀴어 커뮤니티의

‘무신론적인 분위기’에 각각의 몫을 더할 것도 같습니다. (물론 현재지향성이나 확장된 청년기 같은 특성들이 쿼어 문화가 이성애자들의 주된 삶의 방식에 비해 유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정상주의적인 가치관을 전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교성과는 어떻게 자세하게 관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줄이겠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독교인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또 다른 ‘커밍아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종교를 가지기를 선택한 동성애자들의 고통과 고민을 ‘성정체성을 완전히 긍정하지 못한 상태의 것, 아직 충분히 쿼어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 혹은 ‘덜 세련된 것’으로 생각해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종교를 가지기로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 받아야 마땅하니까요.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해 비호의적인 분위기를 가진 쿼어 커뮤니티 속에서 기독교인 동성애자들은 이중의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갈등의 지점들을 종교 커뮤니티에서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도 털어놓고 지지 받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직 이러한 지점에 대해 고민해 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성소수자 진영에서 먼저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4. 기독교와 동성애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들

### 1) 성경에 대한 대안적 해석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계와 성소수자 진영이 오랫동안 갈등관계에 있었고 현재에도 대체로 그러하다는 것은 제법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기독교인 동성애자들은 어떤 집단에서도 완전한 수용경험을 하지 못하고 정체성에 모순을 느끼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동성애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그토록 죄악시하게 된 원인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성경에서 동

성애를 죄악이라고 명시하는 몇 개의 구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구절, 레위기의 구절과 로마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구절들이 반드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는 않다는 성서 해석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서의 '맥락'을 살피면서 성서를 읽어야 한다는 주장에 바탕을 둔 이야기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에 의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보다 '역사 비평적 읽기'의 관점에서 성서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즉, 성경이 쓰인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성서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를 더욱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표현된 문자 너머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읽는 관점입니다.

반면에 동성애에 대한 구절들이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성서 근본주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한국 교회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문자 그대로 읽기'의 방법을 채택해 성경을 이해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쓰여진 그대로 읽는다는 것이 성서를 당시의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시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옳은 방식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은 신의 말씀이 담긴 신성한 경전이고 그래서 역사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주의적 방법론이 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는 바대로 객관적이고 맥락 초월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 비평적 읽기의 관점보다 그러한 방법론에서 훨씬 더 빈번하게 성경의 특정 부분을 취사선택해서 인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여러 구절들은 오늘날의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와 같이 재물을 축적하는 행위를 경계하는 구절은 동성애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기독교에서는 부자가 구원 받기란 아주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징표라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물질이나 돈의 문제같이 기독교인 당사자들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주의자들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들의 근본주의적 방법론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그 구절을 당시의

사회적 맥락과 연결 지어 적절한 의미를 파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하기를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먹지 못하는 음식의 종류나 입지 못하는 의복의 종류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면과 아마를 섞어서 옷감을 짜는 일은 부정한 일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가재와 새우도 비슷한 이유로 인해 부정하고, 따라서 먹어서는 안됩니다. 이와 더불어 성경에는 노예제를 지지하거나 남녀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많습니다. 생리 중인 여성은 불결하다거나 여자는 남편의 뜻에 복종해야 하고 교회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등의 구절들이 그렇습니다. 성서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도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강조하거나 오늘날의 사회에도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절이 동성애에 대한 몇 안 되는 구절보다 성경에 훨씬 많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확연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근본주의자들이 침묵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문자 그대로 읽기'의 방식을 객관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특정한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이고,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크게 변화한 오늘날에는 전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위험합니다. 시대적 맥락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입맛에 맞는 특정 부분만 취사선택해서 가져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므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진리이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비평적 읽기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관점 역시 성경에 오류가 있다가 신의 뜻이 온전히 담겨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초월성은 쓰인 그대로의 문자에서보다 그것에 담긴 '의미'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다루고 있다고 알려진 성서 구절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반드시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구절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동성애라는 죄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심



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인용되는 구절을 살펴보면 상당히 명백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남색'이 아니라 '손님을 환대하지 않은 죄'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로 명시하는 것으로 가장 흔하게 알려진 구절은 사실 동성애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 18:22)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3)라는 구절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명백하게 동성애를 죽여 마땅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맥락을 고려해 읽는다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절들이 등장하는 지점인데, 레위기는 '성결법'을 명시한 책으로 성결법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부정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서술하고 있는 일종의 도덕법이자 종교적 분류체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는 나름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는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거나 침대에 눕는 것이 '더러운' 일입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레위기에 명시된 동성애, 혹은 보다 정확하게 남성간 성행위도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의 분류체계에 의하면 남성간 성행위는 '부정한', 혹은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성행위의 유일한 목적은 생식을 위해서라고 생각했고, 삽입하는 남성과 삽입 당하는 여성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믿었는데 남성간 성행위는 그 기준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자위행위나 몽정 역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거나, 두 가지 직물을 혼합하여 만든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구절들이 오늘날에는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도 당대의 분류체계가 현재의 것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 역시 '죄악'이 아닌, 당대의 분류체계에 의해 '부정'한 것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분류체계에 의한 성결법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금기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 1:27)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신약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로 동성애를 죄악시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역시 역사 비평적 읽기의 관점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절에 쓰인 ‘부끄러운 일’이라는 단어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의도적) 오역이 있었으리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번역 전의 그리스어 원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비전형적인’ 정도의 의미로, 말 그대로 남성 간 성행위가 당시에 특이한 일이었을 뿐이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단죄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성애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단골로 들고 오는 성경 구절들은 그 맥락을 파악하고 적힌 그대로의 문자를 넘어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실제로는 동성애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그것이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특정한, 그리고 제한적인 시대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하다고 여겨진 경우에도 그것이 윤리적으로 죄악시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신발을 신고 침대에 올라가는 것’ 정도의 사회적 금기였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성애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서로를 사랑이라고 부르며 연인관계를 맺었던 다윗과 요나단, 레즈비언 관계였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롯과 나오미가 그 예입니다.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백부장과 노예 소년의 관계도 인상적입니다. 아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러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특정한 결론과 가까워집니다. 성경은 사실 동성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등장하는 횟수나 그 비중을 살펴보면, ‘이웃사랑’, ‘우상숭배 금지’, ‘약자에게 베풀기’와 같이 성경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에 비해 동성애는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주류 기독교계에서 동성애에 기울이는 과도한 관심은 확실히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 2) 성경의 동성 간 성행위 ≠ 현대 사회에서의 동성애

이렇듯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맥락을 고려하며 해석하는 방식과 성서 근본주의의 방식으로 읽는 관점은 중요한 가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남성 간 성행위'가 오늘날의 '동성애' 개념과 동일하다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있다느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 관계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다느니 하는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 두 가지는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동성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성애라는 개념이 발명된 것은 인류 역사상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성행위는 개인의 고정된 '정체성'으로서의 의미를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성별에 끌림을 느끼는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게 된 것은 오직 현대 사회에 특수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기록된 동성간 성적인 행위는 오늘날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으로서의 동성애와 같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기준들을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요. 성서의 구절들을 사용해 현재 존재하는 동성애자들을 죄악시키는 것은 더욱욱 옳지 못한 일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그 두 가지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지 않으니까요.

다른 예시를 들어 본다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서로 사랑해서 남녀간에 맺어지는' 형태의 결혼이 등장한 것도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사랑'과 '결혼'이 결합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것이었지요. 결혼은 안정적인 경제적 단위를 꾸리기 위한 제도였고, 불안정하고 변하기 쉬운 사랑이 결혼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결혼과 오늘날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결혼이 이름은 같을지라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살았다. 얼마나 불행했을까?' 하는 말을 그 때의 사람들이 듣는다면 아마 몹시 황당해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결혼으로 인해서 불행해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당시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

\* 위의 성서 해석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해을 출판사에서 펴낸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의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지면상 더 자세하게 실지는 못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따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 지극히 당연한 결혼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현대 사회의 결혼제도를 목격하게 된다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사랑? 부부간에?? 말도 안돼!' 라고요.

이렇듯 고정 불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도(결혼, 섹슈얼리티 등)가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그 내용과 의미가 바뀌거나 새로 발명된 것들입니다. 성정체성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동성 간 성행위나 동성 간의 친밀한 관계, 사랑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담는 내용들은 언제나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해석하려는 노력들은 항상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서로 같지 않은 것들을 같은 것으로 간주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이후의 논의들에는 필연적으로 오류가 생기게 되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동성애자라는 개념은 '동성의 상대에게 정서적, 사회적, 성적으로 이끌리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 중에, 이러한 감정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섹슈얼리티는 현대 사회 이전에 존재했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이 쓰여진 고대 로마 시기에 있었을 리가 없고요. 그런데도 성경에 적혀있는 동성 간 성행위의 구절들을 오늘날의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 될 것입니다. 애초에 그 당시에는 '동성애자'나 '이성애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러한 무분별한 적용이 오히려 성경을 멋대로 오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이용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죄악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살았던 예수의 모습을 생각하면 기독교 정신이 동성애자를 소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더욱 확실해지고요. 성경의 구절들을 포함해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류 기독교계의 방식으로 동성애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반성경적이며 반기독교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에서 그토록 맹렬하게 동성애를 비난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교리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그러한 교

리직 물이해가 이어지게 되었는데 라는 의문에 답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편견에 종교적인 절대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에 종교적 믿음이 더해지면서 '동성애는 죄악이다'라는 생각이 절대적인 사실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혐오하게 되었다고 믿겠지만 그 선후 관계는 잘못되었습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느낌이 먼저 있었고, 그 느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혐오, 이른바 동성애가 '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동성애가 낯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대적인 의미의 '동성애'가 아주 최근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요. 다른 말로,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 자체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원래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과 처음 마주치게 되면 먼저 경계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하니까요. 아직 그 대상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만 그 대상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위협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런 '낯설고 거북한 느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의 그 낯선 느낌에 종교적인 절대성을 부여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 3) 우상숭배의 문제

이렇게 맥락을 고려하며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동성애 개념의 상대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동성애와 기독교가 대립해야 할 이유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 동성애자 정체성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사실은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독교인 동성애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종교와 동성애가 갈등할 더 이상의 이유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비종교인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이런 모든 논의가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재차 강조하자면 종교를 떠난 맥락에서 이러한 갈등들은 전혀 문제적이지 않습니다. 쿼어 문화나 동성애적인 삶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정체성

과 성정체성을 통합하게 된 기독교인 동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 하면서 살아간다면 충분히 건강한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고민의 끝에 기독교를 더 이상 자신의 종교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거부하게 된 동성애자들의 경우에도 종교와 성정체성 사이의 갈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종교인 동성애자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 정체성 역시 다른 모든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변화 가능하지만, 종교를 떠나겠다는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는 어떠한 필연적인 문제점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와 성정체성 간의 갈등 속에 남아있게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기독교적 세계관을 버리지는 못했지만 성정체성으로 인해 '종교적인 삶'을 거부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입니다. 가톨릭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냉담' 중인 사람들이 되겠지요. 앞서 설명했듯이 기독교와 동성애가 화해하고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충분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종교와 성정체성 사이에 갈등이 남아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맥락유관적 해석을 통해 동성애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애초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가 오늘날의 동성애 정체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도요.

그러한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여러 면에서 기독교와 동성애 정체성은 서로 대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 면에서 전형적인 기독교적 삶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그러한 삶의 방식을 택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서가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로 인해 다른 기독교적 가치관들까지 모두 전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전통적인 성별역할, 금욕적이고 절제적인 생활 방식, 보수적 성 윤리관, 교회 커뮤니티에 활발한 참여 등 기존의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동성애 금지'라는 항목이 하나 빠지게 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요구들이 덜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적인 삶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많은 부분 포기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즉, 성정체성

자체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갈등하는 동성애자'들은 '나는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여전히 종교와 성적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더 이상 동성애자 정체성이 직접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은 '우상숭배의 문제'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상숭배를 가장 큰 죄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유일신을 배신하는 행위인 것이지요. 이 우상숭배라는 행위는 구약성서에 묘사되는 것처럼 다른 민족의 신인 바알을 섬긴다거나 하는 행동보다 확장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다른 모든 대상들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서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을 비롯한 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같은 질문을 던져 봅니다. '당신은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익숙하고 편안해서, 기독교적인 삶은 요구하는 바가 너무 많아서, 내가 지향하는 가치관과는 달라서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과 '나' 사이에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신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신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보다 자신이 선택한 방식의 삶을 우선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민해야 하는 바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과연 신보다 돈을, 가족을, 권력을, 안락한 삶을, 좋은 직업 등등을 더 중요시하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 봐야 하겠지요.

#### 4) 마지막 대답: 개신교의 본질로

이러한 우상숭배의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기 위해 저는 개신교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신교적인 교리에 바탕을 둔 답이기에 어쩌면 지금까지 서술했던 것과는 달리 기독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에

도 어떠한 방식의 해결책이 있을 것이지만, 가톨릭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가 개신교에 대한 이해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적절한 종교적 대답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가톨릭에도 우상숭배라는 마지막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고민을 통해 그 대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면서 이번 글에서는 개신교로 그 범위를 한정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우상숭배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개신교의 가장 본질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활동을 펼친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종교사회학 연구에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와 개신교 간의 연결지점에 대해 분석한 저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의하면 개신교는 가톨릭과 중요한 지점에서 구분된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종교적인 의례와 성스러운 절차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신자는 신의 대리자인 교황이나 사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신과 만나고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16세기에 이르러 이러한 의례와 행위의 강조가 성직자의 권위 남용과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연결되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를 구입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면죄부 판매를 허용한 것이 가톨릭 교리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악용한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하는 종교개혁의 결과로 등장한 개신교에서는 고백성사, 미사, 선행 같은 '행위' 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신자 개개인이 직접 신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종교의 핵심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개인과 신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와 성직자가 있었다면, 개신교에서는 개인이 기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신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점은 교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종교적인 의례 절차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선행이나 회개도 구원을 담보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리고 오직 믿음만이 '진짜' 신앙의 징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결국 구원의 여부와 종교인으로서 삶의 방식은 동성애자 개개인이 신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게 됩니다. 지배적이고 '검증을 받은' 성서 해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권위적인 목사나 사제가 신의 말씀이 어떠하다고 전하는지 하는 것들은 덜 중요합니다. 성서 독해에 있어서 주교단의 해석을 벗어난 이해를



인정하지 않는 가톨릭과는 달리 개신교에서 모든 사람은 성서 해석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성서 앞에서 동등하며 성경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류 기독교계의 성서해석이 무엇인지, 그들이 동성간 성행위를 다루고 있는 구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으며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문제에 대한 해결 지점도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지만 동성애자 정체성으로 인해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것은 우상숭배의 문제일 수 있다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보다 더 사랑하며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선했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적 신앙의 맥락에서는 분명 문제적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맥락에 한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비종교적인 맥락에서 '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자로서의 삶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충돌하고 부대끼는 원인들을 살펴보는 것을 중단하고 무조건적으로 신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숭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작은 그 부대끼의 지점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어떤 것이 과연 '신의 뜻'인지, '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인지 하나씩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대답은 주류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교리 해석은 많은 부분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특정한 방식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민이 되는 지점들, 도무지 내가 따라 살아야 할 방식으로 인정하기 힘든 것들 모두에 대해 직접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혼전순결주의, 금욕주의, 성별역할분리, 이성애중심주의 등등 자신이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신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대답을 따라 살아갈 때 우상숭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종교와 동성애자로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정 고민이 된다면, 당신이 직접 신에게 물

어 대답을 찾으세요.” 오직 그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답만이 그 사람에게는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동성애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5. 나가면서

모든 논의를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잠깐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에 저에게는 몇 개월 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신은 어떠한가?’ ‘신은 정말 동성애자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개인적인 해답을 얻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기독교 신자였지만 그 점이 저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회기에서 저는 제게 가장 소중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체화를 한 뒤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유난히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었던 한 언니가 해주었던 말이었습니다. “언젠가 네 부모님이 말해주시겠지만, 지금은 내가 말할게.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 이제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께 하면서 저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보기에 기쁜 모습으로 너를 바꾸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신이 준다는 사랑과, ‘어떤 모습이든 상관 없이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은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것인가 하고요. 그리고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후자를 발견한 순간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비로소 그만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ですよ. 그러니까 저는 사랑과 자비의 신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실제로는 하나도 자비롭지 않으며, 오히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잔혹한 신인 동시에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사랑보다도 못한 사랑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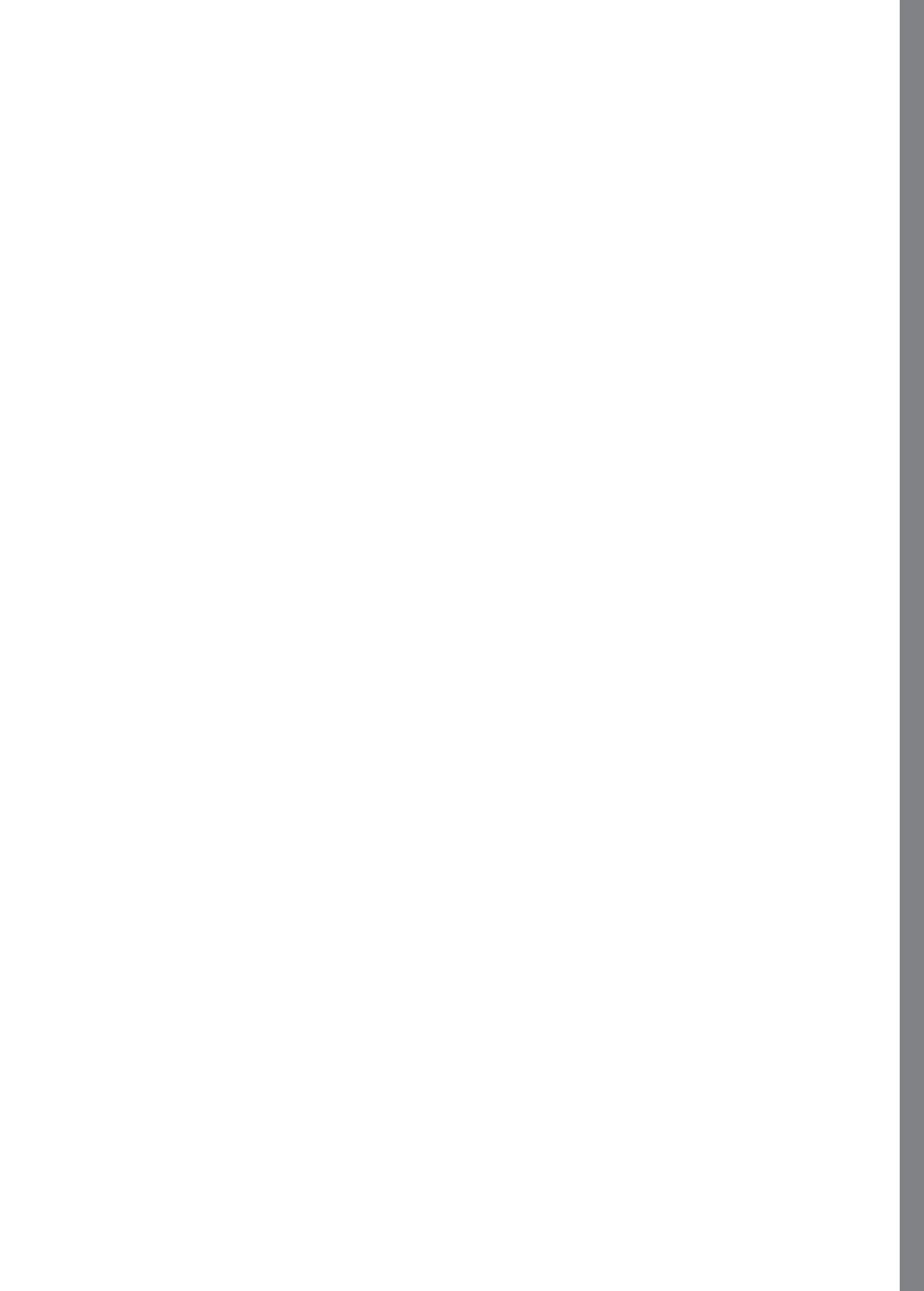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선생님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일들에 관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제가 커뮤니티를

찾게 되고 저에게 그 말을 들려준 사람을 만나게 된 일 역시도 하나님의 개입이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 종교를 마침내 버리게 되고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동성애자로서의 삶의 선택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제정신인 신이라면 도대체 왜 그런 것을 원하겠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들려준 대답에 저는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고통 받고 있으니까요. 부모님의 종교적인 강요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만나고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처음에 저의 배경을 밝혔듯이,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독교적 세계관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신은 정말로 사랑의 신일 수도 있겠다고요. 주류 기독교계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를 지옥불에 집어넣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는 신이 아니라, 두 번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신이라면 그는 얼마나 자비로운가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고통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신이라면 아마 그는 성정체성을 억지로 바꾸라고는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와 성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놓여나기를 바라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편해지기를 바랄 거예요. 물론 전술했듯 그런 해답조차 신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구한다면 분명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천도서 및 추천 웹사이트

- ◆ 다니엘 헬미니악 지음,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김강일 옮김, 2003년, 도서출판 해울
- ◆ 슌 프로젝트 엮음,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 2010년, 도서출판 한울
- ◆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인 연대’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equalchrist>



주제별  
상담 사례  
2부

## 5. 나를 지키는 방법1

### :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 사례

---

여고에 재학 중인 고2입니다. 연애를 두 세 번 정도 해 봤지만 지금은 여자친구 없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친하게 지내는 이반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답답한 세상에 정말 힘이 되는 존재들이랍니다.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을 때는 위로도 많이 받았고요. 저 스스로도 제가 레즈라는 사실 자체로 힘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 거고요. 문제는 부모님입니다. 커밍아웃 할 생각 미처 못 하고 있었는데 일이 터져 버렸네요.

저희 집은 뭐랄까 전형적이랄까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어렵게 자라셨다지만 지금은 직장 생활 안정되게 하시는 가장이세요. 어머니는 결혼 초까지는 이 일 저 일 하셨다는데 아버지가 자리를 잡으신 뒤부터는 줄곧 전업 주부로 지내셨고요. 그리고 동생이 하나.

복에 겨운 소리가 싶지만 저와 동생은 부모님의 지극한 관심 속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저희에게 거시는 기대가 큰 편이에요. 당신들이 안정된 삶의 기반을 애써 꾸려놨으니 이제 자식들이 보다 크게 성공할 차례다 하고 생각하시는 기색이에요. 그러다 보니 관리가 철저하달까, 저와 동생에 대한 간섭이 심합니다. 학교 생활, 교우 관계, 학업, 과외 등 여러모로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특히 어머니가 그러시죠. 아버지는 주로 어머니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는 편이고요.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제가 여자 친구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해 오는 가운데 지금까지 안 들킨 게 용하다 싶기도 합니다. 집에서 크게 티를 안 내긴 했지만... 어쨌든 관찮으려니 하고 방심한 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했어야 하는데, 한다고 했는데도 저도 모르게 소홀했나 봐요. 제가 학교 간 사이 어머니가 대청소를 하실 참으로 제 방도 한 바탕 엮으신 가운데 보시기에 수상쩍기 그지없는 것들을 발견하신 겁니다. 옛날 애인하고 쓰던 교환일기라던가 제가 낙서삼아 그린 좀 야한 그림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말이죠.

이게 이를 전인데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워낙 보이시해요. 가족들하고 같이 나가도 아들 소리 꽤 듣고. 저거 선머슴 같아서 어쩔 거냐고 여자답게 하고 다닐 수 없는 거냐고 평소에도 잔소리가 장난 아니었는데 그런 거까지 보셨으니 어머니가 난리를 안 하시기가 오히려 더 어려웠겠죠. 제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해서 채어 가시더니 기어 이 비밀번호를 캐내시고는 이반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이며 주고받은 카톡이며 또 다 보시대요. 너 미쳤냐고, 정신병자 아니냐고, 왜 이런 애들하고 같이 다니냐고, 왜 여자애가 그딴 그림이나 그리면서 노냐고, 너랑 같이 노는 애들 다 미친년들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여자랑 여자랑은 친구밖에 못한다고. 인륜이 있고 천륜이 있다고. 너 같은 딸 낳은 적 없다고. 남자애같이 하고 다닐 때부터 알아 봐야 하는데 다 자기 잘못이라며, 이러기까지 할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며 펄펄 뛰셨습니다.

평소에 퇴근이 늦으신 아버지도 그날따라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진작 전화를 하셨던 거죠. 큰일 났으니 빨리 집에 오라고요. 아버지는 저나 제 동생이 맘에 안 들게 해도 어머니처럼 난리를 부리시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더 무서워요. 너희 엄마가 너에 대해 나에게 한 말이 다 맞는 거면 넌 내 딸 아니라고 해 버리셨다니깐요. 스스로

당장 그만두든가 못 그러겠으면 치료를 받으러 가든가 둘 중 하나를 하세요. 집에 인터넷도 끊고 휴대폰도 당분간은 못 쓰게 하겠대요. 하는 꼴 봐서 영 안 되겠으면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집에만 있게 한대요. 민망해서 어딜 내보내겠느냐고요.

부모님은 저에게 약속을 하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당신들이 저에 대해 이 문제로 신경 쓰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이지요. 약속 못하겠다고 하면 제 친구들, 저 같은 이반 친구들 부모한테도 다 연락해서 부모들끼리 힘을 합쳐서라도 우릴 막을 거래요. 그래도 일단 내 새끼먼저 멀쩡하게 만들고 봐야 하니 저만 정신 차리면 다른 부모님들한테까지 연락하는 건 참으시겠다네요. 자기들도 창피하다고요.

저는 이반으로 안 살 순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다고요. 부모라면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죄도 병도 아니잖아요. 자식이 불행하길 바라는 걸까요? 제가 틀려요? 이럴 땐 어떡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참아야 돼요?

## 상담글

본인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모님의 극심한 혐오 반응과 그에 동반된 통제의 강화로 막막한 상황을 겪는 중입니다. 동성애를 천벌 받을 죄악이자 더러운 질병으로 여기는 부모님을 떠나 떳떳하게 혼자만의 활로를 모색할 지, 부모님의 뜻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으며 참고 견디는 편이 좋을 지 갈피를 잡기 어려워하고 계시네요.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 레즈비언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지지

우선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정체화 하고 그 사실에 거침없이 당당하신 모습에 무한한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 사회는 차츰 다양한 성적지향, 성적체성, 성별표현, 성별정체성 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노동, 문화, 대중매체, 법제도와 같은 여러 사회 영역에서 꾸준히 변화가 이어지는 중이지요. 그러나 동성을 향한 이꼴림이나 동성과의 특별한 친밀함, 교제, 성관계, 가족 형성 등은 여전히 손쉽게 낙인 찍힙니다. 외모나 성격 상 이른바 여자답지 못한 여자, 남자답지 못한 남자에 대한 사회적인



비하나 단속도 아직 강력합니다. 성별 규범과 이성애정상성이 너무도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차별과 혐오가 뿌리깊은 만큼, 자기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 하는 과정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자기 혐오와 학대에 시달립니다. 자기가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워하지요.

그러나 당신은 이 같은 사회적 편견과 검열의 분위기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지지망도 만들었습니다. 정말 근사하고 용감한 레즈비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바와 같은 어려움을 앞으로도 또 만날 수 있겠지만, 한 고비 두 고비 충분히 잘 넘어갈 역량을 갖추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 **부모님과과의 갈등 상황에서 느낄 괴로움과 분노 공감**

커밍아웃 할 계획도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알게 된 상황이므로 몹시 당혹스럽겠습니다. 부모님이 충격에 휩싸여 노발대발 하시는 만큼이나 본인 역시 상당한 충격과 억울함으로 정신 없으리라 짐작합니다. 물론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에 거리낌이 없고 이반들과 어울리는 일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럽게습니다. 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나에 대해 알게 되는 사건은 그와는 별개이니가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마음에 커밍아웃을 미루어 두셨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커밍아웃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알게 되셨지요. 나의 중요한 비밀을 직접 고백할 기회를 빼앗기고 마셨으니 그 점부터가 많이 속이 상하시겠습니다.

자책하기 쉬운 상황이기도 하겠다 싶습니다. 더 잘 숨겼어야 했는데, 하는 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탓하지는 마세요. 이 상황에서 당신이 잘못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자 친구를 사귀었던 경험도 잘못이 아니고, 이반 친구들과의 사이 좋은 관계도 잘못이 아니며, 애정과 욕망을 드러내는 내용의 일기와 편지를 보관해 왔거나 취미 삼아 야한 낙서를 한 것 역시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사실들 자체가 잘못이 아니므로 그것들을 완벽히 못 숨겼다는 것 역시 잘못일 수 없겠지요. 자책하기 보다는 차라리 억울해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사적인 기록들을 파헤쳐 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로서는 부끄러워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남들 보기에 이상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갖은 욕을 다 먹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서러워하시는 편

이 그나마 낫습니다. 나 자신을 탓할 이유만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서 당신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들, 당신에게 생활의 울타리를 제공해주는 존재들,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앞날에 계속 신경을 쓸 존재들, 적어도 당신의 경우 부모님이란 그런 존재들인 만큼 (부모님이 자식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거나 부모님이 아예 안 계신 경우도 허다한 것이 무수한 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분들로부터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 받는다면 정말 든든할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당신의 상황은 그러한 이상과는 동떨어져 있네요. 부모자식 관계마저 부정하는 폭언이 난무하고,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가둬놓고 말겠다는 협박까지 이루어지는 와중입니다. 지금 부모님에게는 딸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서글프고 힘든 마음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라 짐작해 봅니다. 어쩌면 지금의 심정으로는 부모님처럼 멀리 느껴지는 존재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스스로 자랑스러운 레즈비언이라고 해도, 나의 성정체성에 대해 쏟아지는 폭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그 자체가 상처로 남겠지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어머니나 아버지가 심한 말씀들을 하실 때면 그 표현들을 고스란히 담아두기보다 되도록이면 흘려 버리세요. 아무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씩 다 귀담아 들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당한 욕이며 꾸지람들은 본인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시다. 무례한 태도를 보일 경우 두 분의 화를 더욱 돋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작 힘들어지는 건 본인이므로 요령껏 상황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상황의 현실적 직시 및 결단 권유

성정체성을 고치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것인가, 안 고치겠다고 버티며 극도로 통제 당할 것인가. 부모님이 제시한 선택지란 이렇게 두 가지뿐입니다. 사실 선택지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둘 다 당신을 레즈비언으로 살게 둘 수 없다는 부모님의 뜻을 똑같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레즈비언임을 저버릴 수 없고, 그리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지 않을 예정인 당신 입장에서는 부모님 슬하를 떠날 것인가 참고 머물 것인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처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한 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바로 자립 가능성입니다. 지금 당신이 부모님의 집으로부터 도망을 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을 상실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잠잘 곳과 끼니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학업을 지속하고 장래의 직업을 위해 여러 기술을 익히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책임이 오롯이 나만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제까지 당신이 당연하게 누려온 많은 것들이 갑자기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게 됩니다. 이는 애초에 집안의 지원이라는 혜택이 없이 생활해 왔다면 새삼 고민할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우는 다르지요. 물심양면 지원을 받아온 입장이니가요.

물론, 예를 들어, 가출 이후 청소년 쉼터를 찾아 숙식을 해결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찾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때와 같은 과외 활동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고교 과정을 마치는 일 정도는 자기 손으로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홀로서기할 방법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코 녹록한 대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 내게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지 냉정하게 저울질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많이 부대끼더라도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지원을 가능한 만큼 누리기를 선택하는 게 나에게 좋을지, 아니면 아무리 가시밭길 같은 십대로서의 자립 생활이 눈앞에 펼쳐진다 한들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게 나에게 좋을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계획한 다음에 집을 나갈지 말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 다시는 부모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부모님께 느껴지는 감정과는 별개로 부모님과 인연을 끊기까지 하고 싶으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둘이

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쳐 버리면, 가출해 버리면 나중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는 편이 더 좋은지, 더 맞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고민 끝에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에 옮긴다면, 그게 바로 내가 갈 길입니다. 최대한 후회 없을 선택을 하면 좋겠으나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직접 결정한 바에 따른 일이라면 아무래도 덜 괴롭겠지요. 집을 나가고자 결정하신다면 가출 이후 자립 생활이 안정되실 때까지 필요로 하시는 만큼 저희도 조력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가출을 실행에 옮기실 경우, 꼭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두 가지 생존 전략 소개: 정면으로 맞서거나 우회하길 택하거나**

여기서는 집에 머물고자 결정하실 경우 취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면으로 맞서는 대응법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부모님의 이해도가 많이 낮고 두 분의 편견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두 분을 이해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깊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상처투성이가 될 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는 도전해 볼 만한 길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 버렸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부모님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좋은 기회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왕 드러난 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인정받을 때까지 고군분투 하는 겁니다. 나는 레즈비언이고 레즈비언으로 살아갈 것임을 굽힘 없이 분명히 선언하는 정면 돌파의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완강하게 반대하며 극단적인 감시와 통제의 방법을 동원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으로서는 전혀 원치 않는 정신과 치료를 강제하실 수도 있고, 교우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서 당신을 고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 말씀처럼 다른 이반 친구들 부모님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시기라도 하면 일은 더욱 커집니다. 친구들의 부모님 가운데에는 자식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

들도 계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리라 예상하는 편이 좀 더 현실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들까지 뜻하지 않게 평지풍파를 겪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홀로 감당하시기는 무척 힘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미리 모조리 예측해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의 도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원이 부모님을 꾸준히 만나뵙거나 전화로 이야기 나누며 당시에 대한 부모님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부모님과 당신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 연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가족으로 둔 이들이 한 데 모여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 감금, 강제 입원, 폭행 등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빨리 저희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 주세요.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표면상의 평화를 택하는 방법 역시 고려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는 현재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맞추어 생활하기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레즈비언으로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겠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의 의심을 살만한 요소들을 생활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극도로 예민해져 있을 부모님의 신경을 누그러뜨려 나에 대한 더듬이를 최대한 거둬 가시도록 함으로써 내가 숨릴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보다 철저한 생활 관리로 딸에 대한 부모님의 신뢰를 회복하여 궁극적으로는 감시와 통제를 약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진짜로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거나 친구들과의 연을 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잠정적으로 낮게 포복한달까요. 성년으로서 본격적인 자립 생활을 시작할 때를 차근차근 예비하는 겁니다. 오갈 데 없어지는 일을 피하고, 사사건건 참견 당하기를 피하면서요. 시간을 버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커밍아웃할 기회는 한 번 빼앗겼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의 상황을 직접 조율해 나갈 기회까지 빼앗긴 건 아닙니다. 레즈비언임에 떳떳하고 앞으로도 내내 레즈비언으로서 살아갈 것이라고 뚜렷이 말씀하셨지요. 이처

럼 뜻이 확고하시니 부모님에게, 네 어머니 아버지, 말씀대로 노력할게요, 동성에 안 할게요, 이렇게 대응하시기가 더더욱 꺼려지실 법 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부정하는 거 아닌가 싶어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시기를 권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멀리 내다 보며 현재를 이용한다고 말이지요. 표면적으로 타협함으로써 나를 지켜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자기 부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인 자기 긍정이라고 해야 더 어울립니다.

이렇게 번 시간 동안 경제적, 심리적 자립을 준비하길 게을리 마세요. 내 생활을 내 손으로 책임질 수 있게 되면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일을 추진하더라도 한결 눈치를 덜 보게 됩니다. 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모님과의 갈등 구도 속에서 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더 이상 부모님의 물질 지원에 기대지 않을 때,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기도 더욱 쉬워집니다. 만일 정면 돌파가 아닌 우회로를 택해 몇 년 남지 않은 이른바 미성년의 시기를 보내고자 하신다면 그 동안 자립 계획을 잘 세워 내실 있게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표면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이 부모님과의 물리적인 가까움은 유지시켜 줄 지언정 심리적인 거리감은 오히려 벌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를 감추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 지내는 과정이란 아예 연을 끊는 것만큼이나 부모님과 나 사이에 깊은 골을 파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거리감을 좁혀 보고자 시도할 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의 친밀함을 더욱 도모하여, 숨겨야만 하는 요소로 인한 거리감을 어느 정도는 벌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부모자식 관계란 서로의 전부를 모조리 빠짐없이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만 돈독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의 공백만큼 다른 요소들에서 더 정성껏 관계를 만들어 갈 방법을 모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숨겨야 한다는 사실이 꼭 당신과 부모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금을 긋는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길을 잡아 가시더라도 상담소는 당신의 결정에 따라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나 고민 나눌 준비 단단히 하고 기다릴게요. 고비를 맞이하게 되거든 꼭 다시 찾아 오세요.

## 6. 나를 지키는 방법2

### : 따돌림과 괴롭힘을 겪을 때

#### 사례

---

전 여고에 다니는 동성애자인 2학년 여학생인데요.

얼마 전 같은 반 친구들에게 동성애자라는 것이 밝혀져서, 따돌림과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전체에 “ooo(제 본명) 레즈래” 하고 소문이 다 나버렸고요. 매일매일 반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차마 여기 적을 수도 없을 혐오스런 말들을 합니다. 뭐, “미친 거 아냐? 징그러워” 이런 소리는 기본이고요. 그냥 너 싫다고, 토 나온다고, 그런 소리도 많이 해요. 욕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말들을 아예 수업시간에 대놓고 하기도 해서 아무리 귀를 막으려 해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담임인 선생은 이런 상황인 저를 도와주는커녕, 오히려 저를 더 괴롭게 하고 있어요. 제가 동성애자라고 소문 난 거 뻔히 알면서, 저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수업 시간 중에 “김조광수 감독이 남자랑 결혼한다는 거 봤냐? 세상이 말세야. 게이들은 죽어야 돼”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까지 신나서 더 떠들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잘 못한 것이 없는데, 정말 너무 힘든데, 저희 반 안에서 누구에게도 도움 받을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요.

또, 반 아이들이 절 괴롭히는 것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눈에 안 띄게 나가서 다른 반에 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대로 짜증나 죽겠어요. 그 친구 들은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애들이 많아서 저한테 동성애 관련해서 뭐라고는 안 하지만, 제 정체성을 이해하거나 인정해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만나기만 하면 다들 남자 얘기만 해서 제가 점점 더 소외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학교 가기가 싫어요.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담글

고등학생이라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매일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며 얼마나 괴롭고 힘들지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이렇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당신의 탓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일은 정말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큰 잘못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일은 하나도 없으니 혹시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항상 스스로에게 잘 해결될 거다, 이겨낼 거다, 하며 위로하고 다독이는 것 잊지 마세요. 상담소에서도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게요.

동성애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이러한 폭력들은, 집단적으로 만연한 혐오이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상담원은 이번 상담 글을 통해 당신이 더 잘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 현실 다루기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마저 당신을 향한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교사라면 당연히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학생들과 함께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에 가담하고 있다니요. 이렇게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동성애를 금기시하고 최악시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니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겠지요.

다른 나라의 경우,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적인 태도를 없애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학교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지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 한 것처럼, 교육 기관에서는 성소수자 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 모색이 더딘 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최근 저희 상담소를 비롯한 여러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는 뜻을 모아, 학교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성소수자 청소년이 조금이라도 더 보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무지개 성 상담소: 성적체성을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2014)를 발간하였습니다.

## 학교 내 지지자 찾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당신을 괴롭혀도 당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라도 담임교사 외에, 마음이 통하고 믿을 만한 선생님이 있다면 한 번 상담을 해보세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도움은 요청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황을 가장 빨리 해결하고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자신만 동성애자라는 사실 자체에 당당하고 떳떳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아이들이 '거짓말' 하는 거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냥 소문이 그렇게 난 거라고, 근거 없이 나를 지속적으로 아주 질 나쁘게 괴롭히고 있다고, 친구들이 내 행동을 흠미 거리로 삼아서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당장은, 당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정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 친구들의 폭력적인 태도를 빨리 알리는 일이니깐요. 학

교 선생님들이 동성애, 아웃팅, 혐오범죄 등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얼마나 나쁜 건지는 동의하실 테니 만약에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 학교와의 물리적 분리를 선택한다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장 원하는 해결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학교에 애정이 없고 또 남고 싶은 미련도 없다면 학교를 떠나는 것도 분명히 한 방법입니다. 너무나 폭력적인 상황에 자신을 ‘일부러’ 노출 시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학교를 떠나는 것, 즉, 나와 학교간의 물리적 분리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걸 스스로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당신이 처한 상황을 필요에 의해 당신의 보호자와 공유하게 된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 할 지도 몰라요. 아마도 지금 당신의 보호자로서는 제도권 교육을 벗어난 뒤 당신이 가게 될 행로를 상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학교를 그만두자고 결정한다면 분명한 의지와 함께 당신이 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미리 살펴보고, 또 보호자와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보호자가 혹시 지금의 상황을 “별 거 아니겠지”라던가 당신의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충분히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꼭 필요할거예요. 반드시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학교를 박차고 나오는 10대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대단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혹은 ‘문제아’여서가 아니라 제도권 교육의 폭력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한 친구들이 다른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전학을 갈 수도 있고, 대안학교를 알아 볼 수도 있고,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볼 수도 있어요. 보호자가 만약 지금 당신의 선택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례들을 가족구성원에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직접 정보 검색을 많이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전국에 널리 퍼져 있는 대안학교들은 각기 다른 특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죠. 대안학교로 옮기는 선택에는 기존의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속감을 느낄 공간을 갖는다는 이점도 있고요. 검정고시 준비뿐만 아니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많으니 이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대안학교 관련 기초 정보는 대안교육연대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 삶과 세상을 되살리는 대안교육연대 <http://www.psae.or.kr/>

하지만, 그렇다고 꼭 '학교'를 계속 다녀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검정고시는 보통 고1 정도의 학습능력만 보여주면 되고, 학교를 다니기 보다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해도 좋겠지요. 하지만 소속감 없이 홀로 지내는 데 자신이 없다면 학교 생활을 아예 안 하면서 불안하고 외로워 질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괴로움보다는 그 편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지만요.

### **보다 강력한 대처를 원한다면**

만약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할 마음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를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단체로 연락을 주세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각 조례들은 '성적지향'을 매개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요. 당신이 있는 곳이 위 세 곳 중 하나라면 인권조례를 근거 삼아 대응책을 마련해 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래 경찰청 학교폭력신고나 각 교육청 인권센터의 상담코너에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경찰이나 교육청이 동성애 혐오적 괴롭힘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에요. 신고 받은 기관이나 학교나 너 나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무지하면 신고한 사람이 굉장히 피로해지지요. 그 과정들이 애초의 피해 자체만큼이나 괴로운 경험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에 어떤 경우에는 담당자들을 교육시켜 나가면서 일을 진행시켜야 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교육시켜 나가며 대응하는 과정들은, 저희 상담소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학교 폭력 신고를 한다거나 교육청 인권센터 등에 지금의 상황을 알리고 정식으로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대응을 하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상담소에서 학교를 찾아가 문제제기 과정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승산이 있는 방법인가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하겠지만요. 만일 그게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당신의 괴로움을 덜 수 있을지 우리 같이 잘 생각해 보도록 해요.

관련 사이트들을 알려 드립니다.

◆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https://www.facebook.com/ivanschool>

<https://twitter.com/lgbtstu>

◆ 동성애자인권연대

<http://www.lgbtpride.or.kr/>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ttp://chingusai.net/>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www.kscrc.org/>

◆ 사이버 경찰청 학교폭력신고

<http://cyber112.police.go.kr/sub.jsp?urlNum=notify8>

◆ 서울특별시 교육청 인권교육센터

<http://www.st-rights.or.kr/index/index.do>

(인권상담구제: <http://www.st-rights.or.kr/custom/custom.do?dcpNo=64430>)

참여마당 '학생': <http://www.st-rights.or.kr/normal/board.do?bcfNo=561142>)

◆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http://shr.goe.go.kr/>

(학교폭력 [http://shr.goe.go.kr/?\\_page=75](http://shr.goe.go.kr/?_page=75))

◆ 광주광역시 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http://human.gen.go.kr/main/main.php>

강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유용한 정보들 탐색하기**

조금만 더 차분히 생각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하세요. 혼란스럽고 두렵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이 약해서 생긴 일이라는 생각도 마세요. “참고 버티라”는 말을 누가 한다면 그런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인고의 과정을 함께 해주

는 이도 없이, 즐거움이나 보람도 없이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참고 넘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선택지들을 살펴 나가 보세요. 그 과정에서 혼자 고민하기란 어려운 일이니 이반 친구들과 많이 소통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해요.

10대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여러 고민을 나누는 온라인 소통 공간이 있어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직 방문해본 적 없다면 다음 두 곳을 찾아 둘러보세요. 친구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거나 인정해주지 않고, 당신을 소외시키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했죠. 아래 알려드리는 커뮤니티에서라면, 당신에게 지금 유용할 정보들이나 도움 받을 만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청소년성소수자커뮤니티 라틴

<http://cafe.daum.net/Rateen>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http://cafe.naver.com/asunaro.cafe>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대리인

<http://cafe.naver.com/youthsexualright>

## 7. 나를 지키는 방법3

### : 아웃팅 위협을 당할 때

#### 사례

---

저는 지방에서 하숙을 하며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후 사권 지만으로 2년 된 사람이 있는데요, 사귀고 난 후부터 성격적인 차이가 너무 많아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놔주질 않아서 여태 끌려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서울에 있는 제 부모님 댁에 와서 제가 여자 사권다고 다 말해버리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을 때 찍었던 제 나체사진과 동영상, 모텔 영수증 같은 것을 부모님께 보낸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돌아오든지, 인생을 버리든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저는 가족에게 알려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사람과 다시 사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정표현도 굉장히 어린 아이 같고 사소한 일에도 욕하고 소리 지르고... 헤어지자고 하면 협박, 폭언, 악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는 말들을 쉽게 합니다. 다시 사권 이후에도 일주일에 2-3번 싸우기는 예사였고,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제 학교며 하숙집까지 찾아와 주변을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랑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같이 살면 헤어져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간의 데이트비용도 내놓으라고 해서 처음에 요구한 만큼 마련해 주었는데, 이제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걸 갚기 전까지는 자기랑 헤어질 수 없다고... 하루에도 문자는 몇 백 통이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수십 통씩 전화가 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해달라는 것을 해주면 놓아줄 줄 알았습니다. 주말마다 끌려 다니면서 원하는 대로 해줬고, 원치 않는 섹스를 요구 받을 때에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그 사람은 제 학교며 서울 집주소와 주민번호, 부모님 연락처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처가 안되고, 저 혼자 의 아픔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사람을 협박죄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 상담글

당신과 교제하던 사람이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신의 부모님에게 성정체성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당신 학교와 집주소, 부모님 연락처까지 알고 있고, 당신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까지 위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헤어지려면 돈을 달라고 했고, 성관계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는 것보다 아웃팅 당하는 게 더 두려운 일이어서, 이제껏 말도 안 되는 상대방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 아웃팅 위협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

아웃팅 위협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아마도 내 성정체성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간 소중하게 쌓아온 관계들이 무너져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때 좋은 마음을 주고받던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며 배신감 느끼고 억울하고 화가 나면서도, ‘내가 뭘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좀 더 잘 헤어졌어야 했나?’ 하는 자책감도 느끼고요. 사람이 어쩌다 저지경이 되었을까? 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협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차적인 방법으로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기분을 맞춰주면서 상대의 마음이 잘 정리되기를 기다려주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아웃팅 위협 상황에

놓인 많은 내담자들이 초기에 이런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은 대개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기대하는 바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생각이 어때하건 간에 이 관계는 상대방이 의도한 바대로 흘러갈 공산이 큼니다. 상대방은 이미 당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거나 당신의 가족과 친구에게 당신의 성적체성을 폭로하겠다고 말할 때 당신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위축되는지, 자기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순순히 들어주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웃팅 위협이 관계를 이어가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마음 정리는커녕 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당신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아웃팅을 감수해서라도 이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내겠다고 마음먹는 일입니다. 실제로 당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당신의 성적체성 혹은 이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요. ‘내가 왜 이 사람의 폭력을 막거나 중단하기 위해 또다시 내가 피해 볼 각오까지 해야 하는가?’ 하며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은 당신이 가족에게 성적체성이 드러나는 사태를 너무도 겁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상황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더 이상 아웃팅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협을 하는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것이 먹혀 들지 않음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전 애인을 놔주지 않는 사람이나 스토크들은 상대가 자기에게 겁을 먹는 모습을 볼 때 상대에 대한 통제력이 자기에게 온전히 있다고 믿고 더욱 제멋대로 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아웃팅 위협에서 벗어나는 단계적인 방법들

아웃팅을 감수한다는 것이 당신의 가족이나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다 알려진 채로 살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단 물려섬 없이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로 이별을 고하고 헤어져야 합니다. 나는 당신과 더 이상 교제관계를 이어갈 마음이 없으며, 마음 다한 연인을 붙잡아 놓기 위한 수단으로 약점 잡아 협박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인간적으로도 교류할 마



음이 없다고도 못박으셔야 하고요. 아웃팅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엄포도 놓으면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거리낄 것 없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쫓아 다니면서 아웃팅하고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으냐고, 아주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이 상황을 이야기 해 두었고 지원을 받고 있는 중임을 상대방에게 밝혀도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괴롭힐 경우 경찰에 신고 하고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겠다고도 분명히 말해 두고요.

이렇게 ‘조용히 물러나라’고 경고한 후에는 상대와 모든 연락을 끊어서 상대방의 언행에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과할 테니, 한번만 만나자. 내 이야기를 좀 들어 달라’ 는 회유에도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이라서,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들어주게 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도, 문자를 읽지도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잦은 연락 때문에 문자나 전화 수신 내역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당분간이라도 기존 전화기를 (해지하지 않고) 꺼두고, 새 번호를 하나 만들어서 가까운 지인들과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당신이 기존의 전화를 없애고 새 연락처를 만들었다는 정보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알려지면, 상대방은 당신과 연락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당신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사는 집이나 학교 앞으로 쫓아와서 소동을 벌이는 일, 문자·전화·이메일 등으로 폭언을 퍼붓는 일 등은 날짜, 시간, 내용을 다 기록하거나 저장해서 남겨 둡니다. 이는 나중에 혹시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상습적’ 괴롭힘을 증명하는 참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자의 경우 사진으로도 촬영하고, 메일의 경우 발신자와 발신날짜가 보일 수 있게 캡처해서 저장하고, 녹음한 통화내용이 있다면 MP3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만약의 사태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선언을 끝으로 상대방이 조용히 물러나 주면 다행스런 일이 될 것입니다. 아웃팅 위협을 하다가도 이러한 경고와 무시에 체념하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아웃팅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유는, 당당하게 나오는 당신의 모습에 격분한 가해자가 실제로 집이나 학교

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든 당신 가족을 만나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당신의 성적체성을 폭로할 가능성도 절대로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음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미 아웃팅 당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의해 공개된 성적체성을 떳떳하게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실체를 또한 폭로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상대방과 헤어진 뒤로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최대한 가감 없이 털어놓고 조금 더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과 잘못 엮여서 교제한 것에 대해 후회스럽고 억울한 마음이라는 점을 표현하면서 말이지요. 자기 딸이 일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데, 딸의 성적체성이 어떠한지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그 사람을 떼어내는 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당분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면 가족들이 당신이 겪었던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테고,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커밍아웃 자체가 겁나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 커밍아웃 상황이 되면 걱정하는 것처럼 부모님이나 지인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이를 회복하는 데 얼마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혹여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따라서 커밍아웃 이후의 상황들은 많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간 당신이 가족이나 지인들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커밍아웃에 뒤따를 법한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우선 이 사태가 일단락된 후, 그 나름대로 함께 고민해 나가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에게 성적체성이 드러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웃팅 당한 이후에도 당신의 성적체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친구로, 동료로 만났다가 가해자 혼자서 당신을 좋아해 놓고는 당신이 거절하자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난동부리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할 수 있지요. 당신의 부모님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의 이야기보다 당신의 이야기를 더 신뢰할 가능성에 기대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떠한 상황에 이르러서도 당신의 성적체성을 부정해야만 한다는 것에 더 좌절하고 낙담할지도 모르

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성적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나쁜 의도로 속이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더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현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할만한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 **법적인 처벌을 고민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포할 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상대가 당신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폭력(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웃팅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아웃팅 하겠다고 위협한 것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기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미 상대방이 저지른 일 만으로도 법적 처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에서 아웃팅을 수단으로 한 각종 협박, 공갈, 강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소송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www.kpil.org](http://www.kpil.org)

####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

[hopeandlaw.org](http://hopeandlaw.org)

당신은 '상식적이지 않고, 난폭하며, 감정조절도 잘 되지 않는' 사람을 당신 혼자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상되는 주변의 시선과 당신이 설명해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아웃팅 이후의 상황이 무척 겁이 나겠지만, 그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기 위해 현재의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아웃팅은 당신이 염려하는 만큼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고, 커밍아웃과 마찬가지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충분히 통제 가능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아웃팅보다 더한 고통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장 여  
기저기 끌려 다녔고, 돈을 줘야 했고, 원치 않는 성관계까지 응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아무 잘못도 없이 수모를 당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는 일이 가장 안전한 해결  
책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소에서  
도 당신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8. 나를 지키는 방법4

### : 성폭력 피해 경험이 나를 주저하게 할 때

#### 사례

저는 사교성도 괜찮고 사람도 참 좋아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연애는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는 삼십 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특별히 동성애자다 뭐다 정체화를 했다기보다는 동성이건 여성이건 열어둔 상태로 살아왔고요. 그렇지만 남자보다는 여자가 좋은 게 사실이고 앞으로는 그런 저 자신에 대해 긍정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정체성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귀고 싶은 사람도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옛 기억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 내딛기가 몹시 힘들습니다. 오래 전 여자를 잠깐 만났는데 그 관계가 정말 불행했습니다. 동성 간 성폭력이라 할 만한 상황도 있었고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저와 그 사람이 사귀는 사이라고 믿었지만, 상대방은 애초부터 그조차 아니었습니다. 첫 성관계도 저는 싫다는데 강제로 밀어붙이며 네가 이걸 사랑이라 생각한다면 자기를 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무 때나 하려고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자기는 잠자리에서의 취향이

뚜렷하므로 (아마도 펴/부치 얘기 아니었나 합니다) 여자 역할에 충실할 상대(표현에 쓰이는 단어가 끔찍했습니다)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저와는 더 이상 사귄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 관계는 끝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그냥 한번 건드려 본 거라는 생각이 들자 한없이 비참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오랫동안 힘들어 해 왔습니다. 커뮤니티가 워낙 좁다 보니 맘 편히 욕을 하고 돌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해 받지 못하리라 생각한 면도 물론 있습니다. 차라리 상대가 남자였다면, 남자에게 당한 거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가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좀 개념이 잡혀 있었으니까요.

그런 일을 겪었고 그로부터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라서인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여전히 여성과 친밀한 상태가 되는 것이 많이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상답글

마음에 드는 동성 상대와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모색해 보고 싶은 지금, 여전히 아물지 않은 옛 관계로부터의 상처와 고통을 살피는 중입니다. 성폭력으로 점철된 관계였다 기억하십니다. 여자와의 일이다 보니 말로 풀어내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욱 어려웠다고 털어놓으셨고요. 여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처음으로 경험한 방식이 이처럼 폭력적이었다 보니 다시 여자를 만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힘든 기억을 잘 다루어 나가며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마련하시는 과정을 돕고 싶습니다.

### 자기를 긍정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지지

먼저 당신의 자존감과 자기 긍정의 의지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냅니다. 본인이 어떤 쪽으로 더 끌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검열 없이 표현하는 데서 당신의 당당함을 봅니다. 자기 마음의 결을 섬세하게 읽고 그걸 스스로 소중하게 품어낼 줄 아는 따뜻한 기운을 전해 받습니다.

이성보다는 동성의 상대에게 더 끌리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일은 참 많은 이들에

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감정과 욕망을 마음껏 탐색하도록 해 줄 사회적 자원부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성에 대한 이끌림이나 동성 교제란 참 낯설고 이상하고 그래서 싫은 무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의 상대를 향한 특별한 애뜻함을 직접 경험하는 이들 역시 이와 같은 편견을 자기 안에서 완전히 걷어내기 어렵죠. 서글프고 아픈 자기 검열이 그래서 시작됩니다. 자괴감과 죄의식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마음에 그들이 드리워집니다.

자기 긍정으로 가는 이와 같은 걸림돌들을 치우거나 넘으며 여기까지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좋은 마음, 그리고 한 여자에게 갖게 된 호감을 모두 투명하게 바라보는 당신의 용기가 무척 멋집니다. 그 용기가 당신이 앞으로 헤쳐갈 치유의 과정 또한 지탱해 줄 수 있으리라 예상해 봅니다.

### **성폭력 피해를 직면하는 용기에 대한 격려**

상담원이 당신에게서 느낀 건 동성에게 끌린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용기뿐만 아닙니다. 당신은 어쩌면 가장 잊고 싶을 괴로운 경험 또한 마주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오직 혼자서 감당해 왔으면서도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다. 나는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상대로부터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용당했다.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기억을 곱씹어 오셨습니다. 상담소를 찾아 고민을 나누는 일도 그러한 직면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피해 사실을 고스란히 직면하기에 그 경험으로부터 좀 더 튼튼해지고 싶다고 바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피해 경험을 묻고 넘기기보다는 똑바로 보고 헤쳐나가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이처럼 처음 폭력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기까지 그간 얼마나 고독하고 고통스러웠을지 채 다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과거의 그 폭력적인 관계로부터 느끼는 불쾌함, 부당함, 치욕스러움, 비참함, 그리고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바로 당신이 지닌 자존감과 자긍심을 보여준다는 사실, 즉,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충분히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증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누군가가 좋아져버린 지금 예전과 같은 상황이 또 생길까 우려하며 조심스러워 하는 마음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일 터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지닌 치유의 역량입니다. ‘발목이 잡혀’ 과거에 머물고만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

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내가 감당 가능한 만큼만 해 나가면 됩니다.

가해자가 여성이었기에 기존에 당신이 익히 알고 있던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 구도의 성폭력 개념으로는 본인이 겪은 일을 해석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분명히 끔찍한 일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분노와 아픔이 깊었는데 그 일을 마땅히 이름 붙일 방법이 없다. 이름 붙여지지 않는 일들은 안타깝게도 아주 손쉽게 없었던 일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 만큼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지 알 수 없던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많이 암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통은 있는데 그 고통을 만든 사건은 명명조차 되기 어려운 상황, 그건 결국 고통마저 가려버리기 쉬우니까요.

당신은 또한 당신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지를 어려워했던 만큼이나 남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도 몹시 어려웠다고 하였습니다. 나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데 남들이 과연 이해할 것인가. 여자가 여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납득이 될 것인가. 여자와 여자 사이에 성을 매개로 한 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질적인 가능성으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난 성폭력을 언어화 하는 작업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꼭 이와 같은 표현으로는 아니더라도 대략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과정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반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니티에서 대로 선부르게 말을 꺼냈다가 혹여 내분을 조장하는 사람 혹은 괜한 일 들추어서 이반들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 등으로 여겨지지는 않을까 걱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 간의 성관계나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 지인들에게는 애초에 말을 꺼낼 생각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을 터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성 간의 성폭력을 불가능한 것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접하게 될까 두려우니까요. 동성 간 성관계와 성폭력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동성 간 성관계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 자체가 폭력이라는 식의 몰이해와 마주하게 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 지금 여기서 같이 당신이 겪은 일에 이름을 붙여 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이미 “동성 간 성폭력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를 만한 상황이 맞습니다. 당신이 예전 관계에서 겪은 일련의 학대와 폭력은 당신의 동성 파트너가 당신에게 가한 성폭력이 맞습니다. 그 사람과 당신의 관계에서 동성 간 성폭력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 성별이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자라고 해서 결코 당신이 입은 피해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피해는 당신이 느끼는 무게만큼, 꼭 그만큼 무겁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성폭력이란 이른바 남성 성기의 삽입과 여성에 대한 남성의 물리적 우위라는 요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행사하는 모든 폭력이 성폭력입니다. 내가 싫은데도 상대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해야 했다면 그건 성폭력적 상황입니다. 사랑했든 안 했든, 정식 교제였든 아니든, 성관계의 시작 자체에 동의했든 안 했든, 어떤 순간 어떤 행위를 거절했을 때 그걸 강제 당했다면 그 역시도 성폭력적 상황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나 성적체성은 성폭력의 결정적인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이성애자들 사이에서도,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도, 양성애자들 사이에서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사이에서도, 양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에서도,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사이에서도 동성 간 성폭력은 일어납니다. 남성 간에도 여성 간에도 동성 간 성폭력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일이, 당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에는 타인이 당신에게 행사한 폭력, 즉, 가해 행위라는 원인이 존재함을 명시함으로써 당신 고통의 실체를 더욱 잘 존중하는 작업이었으면 합니다.

#### **치유 과정을 위한 도움말**

당신은 당신이 겪은 일을 이제 명명백백하게 성폭력 피해로 규정하였습니다. 당신의 고통에 구체적인 실체를 부여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도 잘 버텨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자신감을 많이 갖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피해의 고통으로부터 회복해 나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피해 경험을 이처럼 말로 꺼내어 놓고 상담원과 나누는 경험이 당신을 조금이나마 훌개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비밀로 간직해 왔던 일을 말/글로 풀고, 그

걸 타인과 나누는 경험이란 그 비밀로 인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외로움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되곤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해 온 경험이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빛을 받아 새롭게 조명되고 이제 그걸 같이 들여다 보아 주는 지지자가 당신 곁에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을 스스로 해 내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돕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옛 관계에서 겪은 폭력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귀중함을 조금이라도 약화시켰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그 피해는 가해자가 저지른 잘못의 증거일 따름입니다. 당신이 입은 폭력 피해의 결과로 당신이 예전보다 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거나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어 버리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지는 마세요. 성폭력이 일어나고 지속된 것, 관계의 종료 후 오래도록 트라우마에 시달려 오신 것, 모두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잘못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나 자신이 못마땅해지거나 미울 때면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상담소를 찾아 피해 경험에 대한 말문을 트셨으니, 그간 혼자 끌어안고 있어야만 했을 무수한 이야기의 타래를 꾸준히 풀어가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상담소와 함께 이야기 해 나가셔도 좋고, 피해 경험의 치유에 심리 상담으로 접근하는 상담가를 만나 같이 작업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누구와든 어떤 기관에서든, 용기 내어 꺼내신 경험 다시 속으로 집어 넣지 않고 하나하나 짚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피해 경험과 관련된 슬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과거의 경험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 것에 갇히지 않고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훈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심리 상담 기관의 정보입니다.

◆ 트라우마 치유센터 사람·마음

홈페이지 | <http://traumahealingcenter.org>

전화번호 | (02) 747-1210

홈페이지를 둘러 보시면 금세 알게 되시겠지만, 트라우마 치유센터 사람·마음은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별정체성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기존 사회의 편견과 차별적 시선을 거두고 당사자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상담하는 기관입니다. 성소수자 친화적인 심리 상담 기관으로 저희 상담소의 신뢰를 담아 소개해 드립니다.

### 새로운 관계 맺기를 위한 제안

앞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겁내는 당신의 마음은 어쩌면 자기 보호를 위한 당연한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요. 두려움이 솟아날 땐 두려운 만큼 두려워하고, 걱정이 생길 때는 걱정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려운데도 애써 무릅쓰려 하거나 걱정이 태산인데도 억지로 그 걱정을 물어두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까닭, 걱정의 근원을 상세히 살피는 작업에 보다 정성을 들여 실질적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줄여 나가는 쪽이 나은 방향일 터입니다.

여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두렵다고 할 때, 당신의 두려움과 걱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요. 상담원은 크게 두 갈래로 당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짐작해 봅니다.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것입니다. 새롭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상대방이 예전에 나를 괴롭힌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 지금은 좋지만 막상 관계로 진입하면 나를 막 대하는 게 아닐까. 한 번 사람 잘못 본 내가 또 잘못 보지 말란 법은 없잖은가.

또 하나는 당신 본인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며 걱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상대가 만일 또 나쁜 사람이라면 나는 예전보다 더 잘 요령 있게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인가. 상대는 예전의 그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사람인데도 내가 지레 겁을 먹고 의심하고 밀어내 버리면 어떻게 하나. 점차 더 친밀해지는 과정에서 제스처 하나하나가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

이와 같은 두려움과 걱정은 당신이 여자와의 첫 번째 (교제 아닌) 교제로부터 긍정적으로 참조할 만한 경험을 하지 못하였기에 더욱 크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동성과의 교제에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으로 관계 맺는 방법의 모델이 아직 당신의 경험 속에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성과의 첫 교제가 안긴 부정적인 충격이 너

무엇던 탓에, 현재의 관계, 새로운 관계마저 자주 예전 관계의 영향력 아래에 두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레 걱정으로 아무것도 못 해 보기에는 당신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 가는 사람과 사귀어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전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사람을 만나 봐야 하고, 교제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부딪쳐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르고 예전 관계에서는 알 수 없었던 관계의 기쁨도 누리고 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마냥 두렵기만 하고 엄두가 안 나기만 한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잠시 보류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여유를 가지고 내 상처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력적인 사람이 지금 눈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뭔가 해 보고 싶다면, 기대감과 설레임을 두려움과 걱정보다 살짝 크게 가져 보셔도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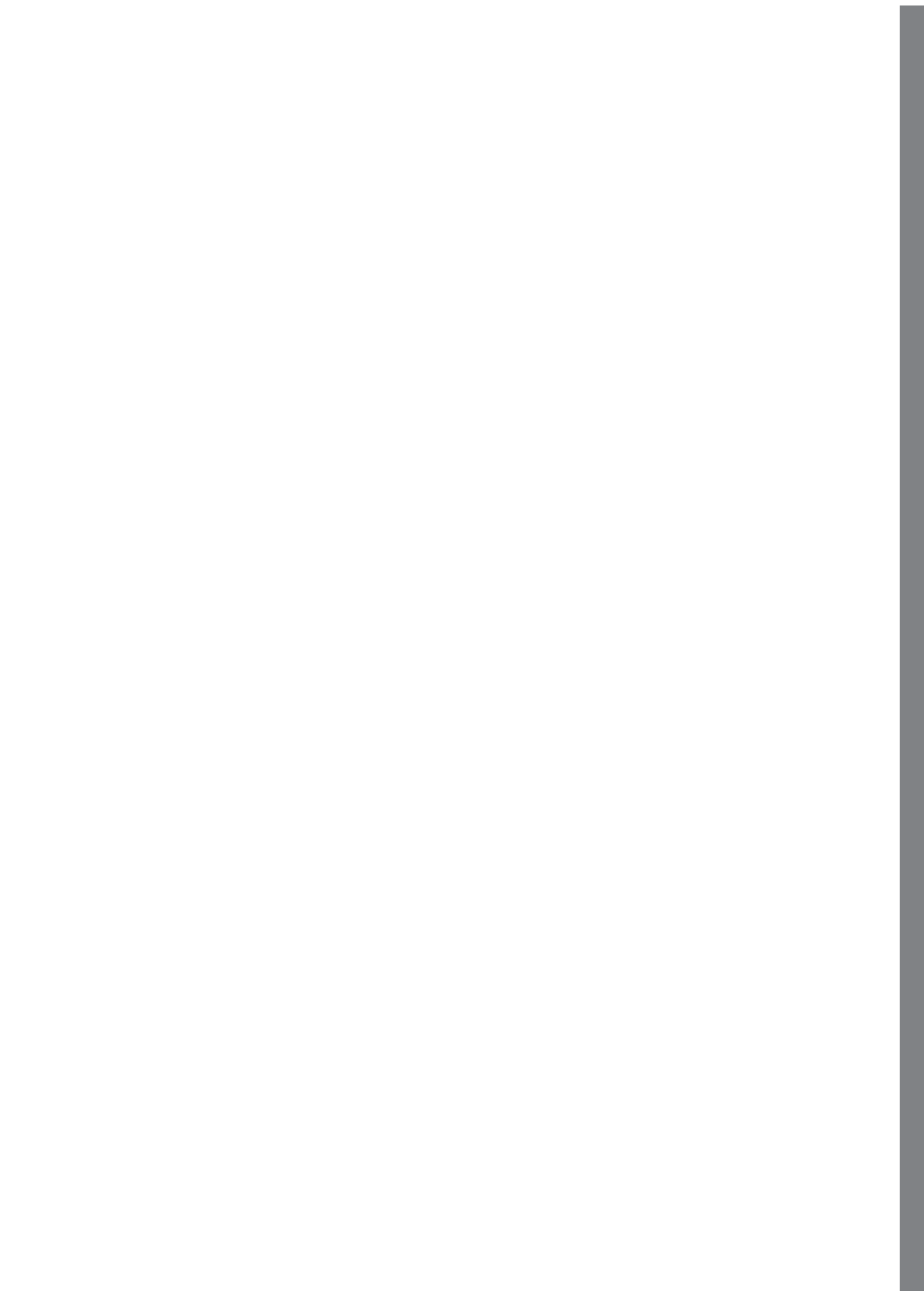
안 그러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므로 관계 속에서 학대적인 사람을 또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보는 눈이 없어서 생기는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타인을 존중하는 관계 맺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미 학대적인 관계를 한 번 겪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전반적인 태도를 지켜 보는 과정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그걸 좀 더 신속하게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재빨리 알아채게 되는 만큼 대응에도 보다 요령이 생길 터이고요.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유사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내 그 상황에 취약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통해 상황을 타개하는 역량을 구비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믿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모색하고 시작하고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조심스러운 건 당신 본인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마다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찾아나감으로써 서로에게 좀 더 편안한 방법으로, 또, 부담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관계를 빚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서두르거나 쉽게 생각하거나 그저 자신감으로 일관하며 관계에 임하는 태도와 비

교하면 조심스러운 편이 서로가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의 관계맺기로 한결 나은 방법 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려워 하거나 걱정하는 지점들을 함께 고민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관계를 모색하실 때,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잘 모르겠을 때면 주저말고 저희와 고민을 나누어 주세요. 상담원과 같이 골똘히 생각하면 홀로 외롭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 때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적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시작되면, 생각만 할 때보다 오히려 매 순간 더 구체적으로 고민들을 풀어내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 과정과 관계 모색의 과정 모두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치실 때마다 조력자 역할을 하리라 약속을 드립니다.



# 2009-2011 상담통계

## 1. 연도별 상담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합계
건수	413	544	453	1399

## 2. 접수 경로별 상담 현황

구분\연도	2009	2010	2011
게시판	288	441	431
메일(2010.07.31 종료)	64	48	0
전화	48	28	21
면접	13	16	1
합계	413	533	453



### 3. 내담자 현황

#### (1) 성별

구분\연도	2009		2010		2011	
	건	%	건	%	건	%
여성	367	88.9	493	92.5	436	96.2
남성	9	2.2	6	1.1	3	0.7
F to M 트랜스젠더	16	3.9	10	1.9	2	0.4
M to F 트랜스젠더	2	0.5	2	0.4	1	0.2
기타	2	0.5	6	1.1	1	0.2
고민중(2011부터 집계)					4	0.9
모름	17	4.1	16	3.0	6	1.3
합계	413	100.0	533	100.0	453	100.0

내담자 분포를 보면, “여성”(“여중생”, “여고생”, “여대생”, “여자”, “엄마” 등으로 표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연간 88.9~96.2%). 트랜스젠더 상담은 2009년 18건, 2010년 12건, 2011년 3건인데, “FTM트랜스젠더”(연간 0.4~3.9%)가 MTF트랜스젠더(0.2~0.5%)에 비해 많습니다. “여성” 또는 “FTM트랜스젠더”들은 대개 레즈비언 정체성과 관련해 찾아오는 내담자들입니다. “남성” 내담자는 연간 0.6~0.8%이며, 주로 게이 남성이나 게이정체성을 탐색하는 남성, 교제하는 상대방이 레즈비언인 이성애자 남성 등입니다.

상담소는 2011년부터 내담자가 자신의 성별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 “기타”가 아닌 “고민중”으로 집계합니다(4건, 0.9%). 4건 모두 성별정체성과 성적정체성을 함께 탐색하는 사례입니다. (예: 레즈비언과 트랜스젠더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 “기타”는 자신을 “여성이면서 동시에 남성이기도 하다.” 라고 밝힌 내담자, 또는 특정한 성별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는 내담자 등을 포함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성별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름”으로 집계합니다.

## (2) 성적체성

성정체성 범주는 “레즈비언”, “게이(남성)”, “양성애자”, “이성애자”, “무성애자”, “고민중”, “기타”, “모름”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성적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성적체성을 고민하고 있음을 명시한 경우, 내담자의 정체성이 내담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집계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름”으로 분류합니다. “기타”는 내담자가 위의 범주에 없는 성적체성을 명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담소에는 대개 자신의 성적체성을 고민중(39.2~42.0%)이거나 레즈비언 정체성(36.3~39.6%)을 가진 여성이 찾아옵니다. 양성애자 여성은 소수이긴 하나 매년 10건 이상(2.4~4.7%) 상담합니다. 이성애자 여성인 경우 성소수자의 언니, 어머니 등도 일부를 차지합니다. 게이 남성(0.2~0.6%), 기타(0.2~2.9%)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합니다.

2011년까지 상담소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 이성애자를 양성애자의 범주로 보고, 무성애자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성애자는 내담자에 따라 심리적인 끌림이나 연애감정을 기준으로 정의될 수도 있고 성적 욕구만을 기준으로 정의될 수도 있어서, 레즈비언이나 게이, 바이, 이성애자 중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소에서는 이를 성적체성 범주에 더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분\연도	2009		2010		2011	
	건	%	건	%	건	%
레즈비언	150	36.3	211	39.6	171	37.7
게이	2	0.5	3	0.6	1	0.2
양성애자	10	2.4	25	4.7	15	3.3
이성애자	24	5.8	11	2.1	5	1.1
무성애자						
고민중	162	39.2	224	42	186	41.1
기타	1	0.2	8	1.5	13	2.9
모름	64	15.5	51	9.6	62	13.7
합계	413	100	533	100	453	100

### (3) 연령

내담자 연령 분포에서는 10대(연간 147~184건, 32.5~37%)와 20대(연간 138~187건, 32~35.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분포를 보이는 주요한 이유는 성정체성/성별정체성 고민이 주로 10대~20대 때 시작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이유는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10대~20대 내담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상담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담게시판으로 찾아오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편, 10대~20대에게 게시판 상담이 전화나 면접상담에 비해 상담원을 대면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적은 경로라고 짐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30대는 연간 15~33건(3.6~6.2%)로 성소수자 당사자이거나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0~50대는 연간 3~10건(0.6~2.4%), 60대 이상은 2011년에 2건(0.4%)인데 성소수자, 성소수자의 부모나 친척, 학교 선생님인 경우도 있습니다. 30~40대 내담자가 소수이기는 하더라도, 성정체성 탐색이 10대~20대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소수자 상담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연령대임을 감안하면, 집계된 수치보다 실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욱 많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구분\연도	2009		2010		2011	
	회	%	회	%	회	%
10~19세	153	37	184	34.5	147	32.5
20~29세	138	33.4	187	35.1	145	32
30~39세	15	3.6	33	6.2	21	4.6
40~59세	10	2.4	3	0.6	3	0.7
60세 이상					2	0.4
모름	97	23.5	126	23.6	135	29.8
합계	413	100	533	100	453	100

연령별 주요 고민을 보면, 10대의 경우 자신의 성정체성/성별정체성 고민, 짝사랑-교제-이별, 동성애혐오, 친구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20대의 경우도 비슷하나 2011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자기긍정” 관련 사례, 즉 성정체성으로 인한 고립감, 우울감, 미래불안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10대(32건)에 비해 많았습니다(52건). 30대 이상의 경우 결혼(이혼 고려 등) 관련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 (4) 내담자의 (이성간) 결혼 여부

내담자들의 대부분은 비혼(64.2~82.9%)이며, 결혼 여부를 밝히지 않은 내담자(14.6~32.9%)들도 많습니다. 기혼 내담자는 2.3~5.1%, 이혼 경험이 있는 내담자는 0.2~0.4%의 분포를 보입니다.

기혼 혹은 이혼 경험이 있는 내담자의 연령은 30대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주요 상담 내용은 성정체성 탐색 또는 교제에 관한 것입니다. 소수이기는 하나 이러한 내담자의 존재는 성정체성 탐색이 결혼 후에도 시작되거나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담소는 결혼 이후 성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또는 변화된 성정체성 때문에 결혼 후의 관계 안에서 여러 문제를 겪는 사례를 집계하고 드러내고자 합니다. 결혼관계나 이혼 관련 상담은 매년 11건 미만으로 소수이긴 하나, 배우자와 자녀, 결혼 관계를 둘러싼 친척 관계 안에서 복잡한 고민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혼이반은 성정체성 탐색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기도 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배우자나 자녀와 갈등을 겪기도 하며, 친인척으로부터 결혼을 지속할 것을 종용당하기도 합니다. 얽혀있는 관계 때문에 배우자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이혼을 협의하기 어렵거나, 이혼 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상해 이혼 결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연도	2009		2010		2011	
	회	%	회	%	회	%
비혼	302	73.1	442	82.9	291	64.2
기혼	21	5.1	12	2.3	11	2.4
이혼	1	0.2	1	0.2	2	0.4
모름	89	21.5	78	14.6	149	32.9
합계	413	100	533	100	453	100

#### 4. 유형별 상담 현황 (복수표기)

상담소의 상담 유형 카테고리는 크게 성적체성, 성별정체성, 동성애혐오, 자기긍정(2011년부터), 대인관계(2011년부터), 커밍아웃, 아웃팅,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제, 학교 내 문제, 직장 내 문제, 결혼 관련, 기혼자(2011년부터), 성폭력, 성, 커뮤니티, 범죄, 종교, 의료, 정보문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상담 현황을 보면 동성과의 교제 관련 상담(41.9~49.4%), 성적체성 고민(43.7~44.7%), 동성애혐오로 인한 갈등(24.9~27.6%), 관련 정보문의(15.5~24.5%) 상담 순으로 많습니다. 소수에 해당하지만 커밍아웃(3.6~7.1%), 아웃팅(7.1~8.4%), 가족관계(6.6~11.1%), 친구관계(4.9~9.0%), 성(4.2~6.8%) 관련 상담도 꾸준합니다.

이러한 상담유형 범주는 2005년 상담카드를 만든 이후로 내담자들로부터 자주 접한 고민들과 성소수자 관련 이슈들을 모아 기존 카테고리를 수정 보완하거나 새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적체성, 동성애혐오(혐오범죄), 성폭력 카테고리 등이 구체화되었고, 성별정체성, 자기긍정, 대인관계, 기혼이반, 의료, 커뮤니티 내 갈등 등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구분\연도	2009		2010		2011	
	회	%	회	%	회	%
성정체성	183	44.3	238	44.7	198	43.7
성별정체성	15	3.6	20	3.8	6	1.3
동성애혐오	103	24.9	147	27.6	115	25.4
자기긍정(2011부터 집계)					114	25.2
대인관계(2011부터 집계)					20	4.4
커밍아웃	15	3.6	38	7.1	32	7.1
아웃팅	31	7.5	45	8.4	32	7.1
가족관계	46	11.1	44	8.3	30	6.6
친구관계	22	5.3	48	9	22	4.9
교제	173	41.9	255	47.8	224	49.4
학교 내 문제	7	1.7	14	2.6	4	0.9
직장 내 문제	5	1.2	2	0.4	1	0.2
결혼 관련	10	2.4	10	1.9	9	2
기혼자(2011부터 집계)					8	1.8
성폭력	8	1.9	17	3.2	7	1.5
성	20	4.8	36	6.8	19	4.2
커뮤니티	6	1.5	16	3	8	1.8
범죄	10	2.4	17	3.2	10	2.2
종교	10	2.4	7	1.3	5	1.1
의료	18	4.4	26	4.9	13	2.9
정보문의	64	15.5	83	15.6	111	24.5
합계	746	180.6	1063	199.4	988	218.1

유형별 상담 현황

## 5. 유형별 상담 세부 현황 (복수표기)

### (1) 성정체성

성정체성의 탐색과 변화과정에 대해 내담자와 상담원이 함께 고민하는 성정체성 상담은 연간 199~276건에 이릅니다.

“성/성별정체성 교차 탐색”에는 내담자의 성정체성과 성별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담겨 있는 사례들이 집계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자로서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남자로서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남자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는데 왜 여자에게 끌리지 않죠?” 와 같은 고민이 담긴 사례들입니다. “탈반”이란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이반’에서 벗어나다는 뜻의 은어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레즈비언 하기 싫어요”, “친구 중에 스무 살 되어서 탈반한 애가 몇 명 있는데요, 제게 아직도 동성애 하냐고 해요.” 등의 사례를 집계합니다. “타인이 (나의) 성정체성 추궁”에는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커밍아웃을 강요받았던 사례를 집계합니다. 커밍아웃을 하면 주변에 소문을 내거나 교제를 그만두게 하려는 등의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에는 성정체성 탐색 관련 고민이지만 위의 세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들을 집계합니다.

구분\연도	2009	2010	2011	
성정체성	동성애자 정체성 탐색	147	197	170
	양성애자 정체성 탐색	16	46	58
	무성애자 정체성 탐색	1	2	2
	성/성별정체성 교차 탐색	20	14	8
	탈반	2	1	1
	타인이 성정체성 추궁	3	8	8
	기타	10	8	3
	소계	199	276	250

상담소에는 동성애자 정체성을 탐색하는 내담자가 가장 많았으며(147~197건), 다음으로 양성애자 정체성 탐색(16~58건), 성/성별정체성을 교차 탐색(8~20건)하는 내담자가 많았습니다.

내담자들은 특정한 상대에 대한 끌림이나 짝사랑 경험, 교제 경험,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일반적인 느낌이나 선호도, 특정 연예인에 대한 선호도, 자신의 이상향 등 다양한 계기를 토대로 정체성 고민을 합니다. 상담소는 내담자 개개인이 가진 이야기와 맥락들을 존중하면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성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 (2) 성별정체성

관련 사례는 3년간 43건이며 “FTM정체성 탐색” 사례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33건 중 16건은 성정체성과 교차 탐색하는 경우였고, 4건은 자신의 내면화된 동성애혐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 9건은 주변인이나 사회로부터 동성애혐오적 대우를 받았거나 염려하는 경우였습니다. 총 2건에 해당하는 “성확정(성전환) 관련 문의”는 의료적 조치 문의나 공문서상 성별 정정을 위한 법적 절차 문의 등입니다. 총 5건인 “기타”에는 성별 정체성 관련 문의이지만 위의 세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들을 집계합니다(커뮤니티, 교제 관련 고민 등). 2011년 집계된 6건 중에서는 4건이 고립감, 우울감, 자신의 신체 혐오 등을 호소하는 사례였습니다.

구분\연도	2009	2010	2011
FTM 정체성 탐색	13	16	4
MTF 정체성 탐색	1	1	1
성별정체성 성확정(성전환) 관련문의		1	1
기타	1	4	
소계	15	22	6



### (3) 교제 관계

교제 관계 상담 건수는 연간 174~257건(총 673건)으로 성정체성 상담 건수와 비슷합니다. 교제 관계의 범주는 “짝사랑 및 고백”, “교제 중 갈등”, “폭력(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금전문제”, “동거”, “이별”, “타인이 교제사실 추궁”, “기타” 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에는 동거 또는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커플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 피해 사례를 집계합니다.

교제 관련 상담은 매년 상담소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상담 중 하나입니다. 성정체성 고민으로 상담소에 찾아오는 내담자 중 약 43%는 특정 상대에 대한 끌림이나 특정 상대와의 교제로부터 성정체성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교제 관련 상담은 2009년 성정체성 상담 153건 중 50건, 2010년 230건 중 111건, 2011년 190건 중 85건에 이릅니다. 그 중 “짝사랑 및 고백” 관련 상담이 연간 91건~143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교제 중 갈등(29건~31건), 이별 관련 상담(16건~27건)이 많습니다.

구분\연도	2009	2010	2011		
교제	짝사랑 및 고백	99	172	151	
	교제 중 갈등	32	32	30	
	폭력	데이트 폭력	3	6	4
		가정 폭력		1	
		소계	3	7	4
	금전 문제	1	4	4	
	동거	1	2		
	이별	20	36	29	
	타인이 교제사실 추궁	5		9	
	기타	27	30	28	
	소계	188	283	255	

#### (4) 동성애혐오

연간 78~95건(총 252건)에 이르는 “내면화된 동성애혐오”에는 내담자가 정체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고 애쓰는 경우, 동성애가 비정상적이거나 죄가 되는 행위라고 여기는 경우, 동성과의 성관계 이후 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연간 20~40건(총 96건)인 “가족 및 지인의 동성애혐오”는, 주변인으로부터 혐오적 표현(“더럽다”, “정신병자” 등) 을 직접적으로 들은 경우,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하고싶은데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심할 것을 염려하는 사례 등이 해당합니다. 연간 14~58건(총 113건)인 “사회의 동성애혐오”는 내담자가 정체성이 알려지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거나 소외당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걱정하는 경우, 폭력을 당할까 두렵다고 호소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정체성 상담 중 2009년 62건(33.9%), 2010년 88건(37.0%), 2011년 81건(40.9%)은 동성애혐오에 관한 고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즉, 정체화 과정에 있는 내담자 3명 중 1명 이상이자 자신, 지인들, 사회 일반의 동성애혐오적 시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1년에는 이러한 상담 81건 중 35건에서 고립감, 우울감, 자기부정적 감정까지 함께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분\연도	2009	2010	2011	
동성애혐오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78	95	79
	가족 및 지인의 동성애 혐오	20	36	40
	사회의 동성애 혐오	14	41	58
	혐오 범죄			
	기타	4	2	
	소계	116	174	177

## (5) 자기긍정

구분\연도	2011	
자기긍정 (2011년부터 집계)	고립감 호소	61
	우울감(무기력) 호소	38
	미래 불안	17
	자기 부정	37
	신체 혐오	5
	기타	3
	소계	161

2011년 한 해 61건인 “고립감 호소”에는 주변에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없거나, 성소수자 친구가 없거나, 커뮤니티 내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음을 호소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38건인 “우울감(무기력) 호소”는 자신의 성정체성, 성별정체성 때문에 무엇을 해도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 교제했던 상대와 이별한 후에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17건인 “미래 불안”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원하는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 가족들로부터 파트너와의 관계를 인정받지 못할 것, 나이가 들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찾지 못할 것 등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을 토로하는 사례들입니다. 37건인 “자기부정”에는 내담자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이끌림을 부정하고 싶거나 자신이 이성애자임을 확인받고 싶다고 토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5건인 “신체혐오”는 자신의 신체나 생리작용에 대한 혐오감, 거부감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 (6) 정보문의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정보(연간 13~35건, 총 74건)를 자주 묻습니다. 2011년 35건 중 22건은 다른 LGBT들과의 관계망이 없어 고립감을 호소하며 커뮤니티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연간 3건~14건(총 27건)에 이르는 “성 관련” 정보 문의에는 동성간 성관계 방법, 안전한 성관계 방법에 대한 문의 등이 있고, 연간 2~9건(총 15건)인 “가족 구성” 정보 문의에는 동성결혼, 파트너십, 임신·출산 및 입양에 관한 정보요청이 있습니다. “상담 기관” 정보 문의에는 심리상담기관, 정신과 등 문의 사례가 있습니다(2011년 14건).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연계”에는 아웃팅, 스토킹, 성폭력, 혐오범죄 등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을 문의한 사례, 교제했던 사람과의 금전 관계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변호사 소개를 요청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2011년 6건).

내담자들이 상담소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는 현재 카테고리에 비하여 다양하기도 합니다(“기타”, 연간 29~49건, 총112건).

구분\연도	2009	2010	2011
성 관련	10	3	14
성소수자 커뮤니티	13	26	35
가족 구성	4	2	9
관련 자료	8	4	5
정보문의			
인연 찾기	5	2	18
상담기관			14
법률상담 및 변호사 연계			6
기타	29	49	34
소계	69	86	135

### (7) 커밍아웃

연간 6~23건(총 38건)에 해당하는 “커밍아웃 준비”에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커밍아웃하기 적절한 시기가 있는지, 상대방이 받을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가족을 이해시키는 데 활용할만한 책이나 자료들이 있는지 등을 탐색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커밍아웃을 준비하는 내담자들 중 일부(총 10건, 13%)는 성적지향을 탐색하는 시기부터 커밍아웃에 대해 고민합니다. “내가 만약 레즈비언이라면, 부모님을 속이지 않고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 텐데...”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연간 5~23건(총 34건)인 “커밍아웃 후 갈등”에는 커밍아웃 이후 가족이 받아들여려 하지 않거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15건), 지인들로부터 호의적이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경우(11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3건) 등이 있습니다.

구분\연도	2009	2010	2011	
커밍아웃	커밍아웃 준비	6	9	23
	커밍아웃 후 갈등	6	23	5
	기타	3	6	1
	소계	15	38	4

(8) 아웃팅, 성/성별정체성으로 인한 범죄 피해

구분\년도	2009	2010	2011	
아웃팅	고의적 아웃팅	14	29	18
	무고의적 아웃팅	5	4	3
	아웃팅 매개 범죄	7	7	8
	기타	6	6	1
	소계	32	46	30
성/성별정체성으로 인한 범죄 피해	스토킹	3	7	3
	협박	5	13	9
	폭언	4	3	3
	물리적 폭력	3		
	사기	2		2
	금품갈취		2	1
	기타	1	3	
	소계	18	28	18

연간 14~29건(총 61건)에 이르는 “고의적 아웃팅”은 피해 당사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성정체성을 폭로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의적 아웃팅은 폭력, 성폭력, 스톱킹, 금전 요구 등과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61건 중 29건). 아웃팅을 전후로 협박, 폭언, 물리적 폭력, 스톱킹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범죄피해 사례 66건 중 26건에 이릅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내담자들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한 염려때문에 지인이나 상담기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꺼려합니다. 우선적으로 당사자 혼자서 가해자와 원만히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곤 하는데, 이 점을 악용한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피해 기간도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웃팅 가해자들은 교제했던 상대방이나 지인이기도 하고, 학교 친구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9) 가족관계/친구관계/대인관계

구분\년도	2009	2010	2011	
가족관계	관계 단절	1		4
	갈등	34	33	19
	폭력(과거 피해 경험)	1	5	5
	외출 금지		4	1
	치료 권유		3	3
	가족 구성원의 성정체성			4
	기타	13	7	2
	소계	49	52	38
친구관계	관계 단절	1	5	11
	갈등	16	29	10
	폭력(과거 피해 경험)	2	1	
	기타	3	13	4
	소계	22	48	25
대인관계 (2011부터 집계)	남성 혐오			18
	기타			3
	소계			21

가족 관계 관련 상담은 연간 38~52건(총 139건)으로, 그 중에서 성/성별정체성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사례가 19건~34건(총 8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친구관계 역시 연간 22~48건(총 95건)의 상담 중에서 갈등 사례가 연간 10~29건(총 5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단절을 경험한 경우는 총 22건에 이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남성에 대한 혐오감, 거부감 등을 호소한 상담 사례는 2011년 18건인데 이 중 13건이 성정체성 고민을 함께 하는 사례입니다(예: “제가 남자를 싫어해서 레즈비언이 된 걸까요?”).

### (10) 성(性)

내담자들은 동성간 “성관계 방법을 문의(총 13건)” 하거나 파트너와의 섹스트러블 등 “성관계 관련 갈등(총 16건)”을 털어놓기도 하고, 너무 충만한 욕구 때문에 “성관계 중독(총 23건)” 여부를 확인하려 하기도 합니다. “기타”에는 성욕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 라거나 이 때문에 교제를 꺼리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구분\년도	2009	2010	2011	
성	성관계 방법 문의	4	4	5
	성관계 관련 갈등	7	5	4
	성관계 중독	5	8	10
	내면화된 금기/터부			1
	기타	4	20	3
	소계	20	37	23



(11) 성폭력\*

2009년 7건, 2010년 14건, 2011년 5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고, 2011년에 가해 사례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전체 33건 중 이성간 성폭력이 22건(가해자는 모두 남성), 동성간 성폭력이 8건(가해자는 모두 여성)입니다. 피해자는 27건에서 (비트랜스)여성, 1건에서 FTM트랜스젠더 남성입니다.

구분\년도	분류	2009	2010	2011	
성폭력	가해/피해 여부	가해		2	
		피해	7	14	5
		가해+피해			
		기타	1	3	
	소계	8	17	7	
	피해 유형	이성간성폭력	6	13	3
		동성간성폭력	1	3	4
		기타	1	2	
		소계	8	18	7
	트라우마	유아성폭력			
기타					
소계					

\* 상담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이때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강제추행, 강간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적, 정신적 폭력까지도 포괄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성폭력 관련 상담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 (12) 의료

“성 매개 질환”은 연간 3건~6건(총 12건)으로 성적 접촉을 통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호소한 사례입니다. 연간 3건~10건(총 17건)인 “심리 질환”은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자살충동 등입니다. “정신과 관련”에는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험이나 정신과에서의 동성애혐오적 치료 사례 등이 해당됩니다(총 2건). “병원 연계 요청”은 성소수자가 편안하게 정체성을 드러내고 상담, 진료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 정신과에 관한 정보 요청 사례입니다(연간 2~4건, 총 8건). “산부인과 관련 질환”에는 질/자궁 내 출혈의 원인이나 대처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 질염의 증상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연간 4~9건, 총 18건).

구분\년도	2009	2010	2011	
의료	성 매개 질환	6	3	3
	신체 질환	3	1	
	심리 질환	4	10	3
	정신과 관련	1	1	
	병원 연계 요청	4	2	2
	산부인과 관련 질환	4	9	5
	기타	1	3	1
	소계	23	29	14

### (13) 결혼 관련

결혼 관련 상담 사례는 연간 10~11건(총 31건)으로, 20~30대 내담자들이 가족들로부터 (이성)결혼을 종용당하는 “이성결혼 압박” 사례(총 14건), 기혼자가 성정체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거나 이혼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이성)이혼 관련” 사례(총 5건)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동성결혼 정보 요청”에 관한 6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동성결혼 혹은 파트너와의 결합이 가능한 제도를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한 국가에 대한 정보, 외국에서 동성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정보요청 등이 포함됩니다. “LGBT계약결혼”은 주변으로부터의 결혼 압박, 원가족과 관련된 사정 등으로 인해 내담자가 다른 성소수자와(레즈비언-게이 사이) 형식적 계약의 성격으로 결혼할 것을 고민하는 사례입니다.

구분\년도	2009	2010	2011	
결혼 관련	이성결혼 압박	5	7	2
	동성결혼 정보 요청			6
	(이성)이혼 관련	2	3	
	LGBT 계약결혼 고민			1
	기타	4		1
	소계	11	10	10

#### (14) 기혼자

2011년부터 기혼이반 관련 사례들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원가족과의 갈등”은 결혼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커밍아웃 했으나 정체성을 부정당하거나, 가정생활에 충실할 것을 요구받거나, 이혼을 거부당하는 등의 사례입니다. “기혼이반과의 관계 및 교제”는 기혼자와 교제하는 내담자가 교제 과정에서 겪는 갈등이나 상대방 가족과 갈등을 겪었던 사례입니다.

구분\년도	2011	
기혼자 (2011부터 집계)	원가족과의 갈등	2
	자녀 양육 문제	
	기혼이반과의 관계 및 교제	6
	기타	2
	소계	10

#### (15) 성소수자 커뮤니티

성소수자 커뮤니티 관련 사례들은 빈도는 낮으나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LGBT 커뮤니티 안에서의 관계맺기/적응문제, 커뮤니티 내 문화에 대한 생각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논쟁들, 이로 인한 갈등 등을 상담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고 그 변화 과정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구분\년도	2009	2010	2011	
성소수자 커뮤니티	대인관계	3	6	5
	게임문화			
	유희문화			1
	악소문		3	
	양성애자 관련 논쟁		2	
	기혼이반 관련 논쟁			
	‘부처’, 트랜스젠더 논쟁		1	1
	역할구분 논쟁	2		2
	기타	2	6	1
	소계	7	18	10

**(16) 종교**

내담자가 믿는 종교의 교리가 동성애자를 죄악시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자기긍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개인적 갈등”)가 총 16건, 목사의 설교 중 동성애혐오 발언이나 교회커뮤니티 내에서의 혐오발언 등(“집단 내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총 7건입니다.

구분\년도	2009	2010	2011	
종교	개인적 갈등	9	3	4
	집단 내 갈등(교회 등)	3	4	
	기타		1	1
	소계	12	8	5

**(17) 학교 내 문제**

학교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이나 괴롭힘 당한 사례, 선생님들의 동성애혐오적인 발언과 시선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들이 주로 접수되었습니다.

구분\년도	2009	2010	2011	
학교 내 문제	훈계	9	3	4
	징계	3	4	
	따돌림		1	1
	가족에게 아웃팅	12	8	5
	교사의 수업 중 혐오발언		2	2
	기타	3	10	1
	소계	7	14	5

(18) 직장 내 문제

“기타”로 분류되는 직장 내 교제관련 상담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구분\년도	2009	2010	2011	
직장 내 문제	차별대우/불이익		1	
	따돌림			
	퇴사 권유			
	해고			
	기타	5	2	1
	소계	5	2	2



## 여성이반, 어떻게 살아요?

주제별 상담사례

함께 한 사람들

---

집필 꼬마, 아롱, 에밀리, 케이

디자인 이틀

발행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발행일 2014년 6월 7일

홈페이지 [lsangdam.org](http://lsangdam.org) 메일 [lsangdam@hanmail.net](mailto:lsangdam@hanmail.net)

전화 02-703-3542(사무) 02-718-3542(상담)

정기후원신청 <http://lsangdam.org/cms>

후원계좌 외환은행 630-004684-74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